

## 미 목회자들 “대통령 선거, 연방대법원서 판가름 날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확인했던 미국 카리스마 운동과 (Charismatics)의 지도자들은 아직 선거가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한다고 크리스천 포스트가 10일 보도했다.

미국의 예언 사역자 켈트 커(Kat Kerr)는 최근 ‘더 엘리아 리스트’ 생방송에서 “당신이 무엇을 듣든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녀는 “그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4년 더 그의 사무실에 앉을 것이고, 하나님은 이 나라에서 당신의 길을 행하실 것”이라고 주장했다.

테네시 주 ‘리제너레이션 네슈빌(Regeneration-Nashville)’의 설립자인 켄트 크리스마스(Kent Christmas)는 최근 선거 결과에 실망한 많은 사람들과, 트럼프의 승리를 선언했다가 사과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자신은 이를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그는 “이것은 트럼프나 바이든, 또는 정치적이거나, 공화당 또는 민주당에 관한 것이 아니다”며 “이것은 천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

과 지옥 사이의 전쟁이며 나라의 운명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스마스 목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 하나는 교회에서 어리석음을 몰아내는 것”이라면서 “우리를 위해 일하는 모든 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것이 제대로 작동한다고 가정할 뿐이다”고 현 시국을 진단했다.

그는 이어 “사탄은 포기하거나 교회가 이 운명을 막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며 “유다의 사자가 이 나라에서 다시 포효할 것이다. 이 이야기의 결말은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라스베이거스 소재 ‘워드 오브 라이프’ 교회의 마이크 톰슨(Mike Thompson) 목사는 평소 트럼프 대

통령이 재선될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그는 지난 주말 동안 주님께서 “모세에게 일할 기회를 주셨다”는 감동을 자신에게 주시면서 자신이 “지금 당장 예언자들과 예언 안에 있는 사람들, 예언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많은 박해가 닥칠 것임을 안다”고 말했다.

톰슨은 “이 모든 것은 부흥에 관한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며 올해 대선은 궁극적으로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예레미야 존슨 미니스트리(JJM)’의 지도자 예레미야 목사는 지난 4일 CP에 보낸 이메일에서 바이든 후보가 선제적으로 당선을 선언했지만, 자신은 선거가 끝났다고 믿지 않는다고 밝혔다.

존슨은 현 시국에 대해 “거짓의 영이 미국에서 신뢰받는 수많은 예언적 목소리에 입을 가득 채웠든지, 혹은 도널드 트럼프가 실제로 대통령직을 차지했고 우리는 선거를 가로채기 위한 극악무도하고 사악한 계획을 목격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

나”고 말했다.

한편, 기독교 음악 랩 가수인 마커스 로저스(Marcus Rogers)도 성령께서 트럼프의 재선을 자신에게 보여주셨다고 최근까지 주장해왔다.

그는 “대법원으로 가게 될 선거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무너질 때까지 나는 서 있을 것이다. 그 모든 말이 땅에 떨어지고 바이든이 1월에 백악관에 입성하면 (.) 나의 비전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하나님께 물어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의 모든 예언 사역자들이 이들의 의견과 같은 것은 아니다. 캘리포니아주 레딩에 위치한 대형교회인 벨벳교회의 수석 지도자 크리스 벨로튼(Kris Vallotton)은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것이라고 한 자신의 예언은 “큰 실수”였으며 “완전히 내가 틀렸다”고 고백했다.

벨로튼은 “나를 믿어 주신 모든 분들께 매우 유감이며, 이런 중대하고 중대한 실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해명했다.

김유진 기자

## 그리스 유 “끝이라 생각하지 않아... 계속 도전할 것!”

“한인 교계와 성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기도에 감사”

LA시의회 10지구 시의원에 출마해 선전을 펼친 그리스 유 후보가 한인 교계와 성도들의 성원과 기도에 감사를 표했다.

유 후보는 또 이번 선거 결과에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도 한인 커뮤니티와 미 주류사회의 다리 역할을 감당하며 정치 입문에 도전할 뜻을 내비쳤다.

유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35,755표(39.24%)를 득표해 55,364표

(60.76%)를 차지한 마크 리들리 토마스 후보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선거 막판 마크 리들리 후보의 97만 달러의 후원금 확보, 유언비어 확산, 50%를 밑돌 정도로 저조했던 코리아타운 한인들의 투표율 등을 감안하면 선전한 결과다.

유 후보는 “이번 선거를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100

불 200불 300불 후원을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특별히 기도로 함께 해주신 교계 지도자분들과 성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선거가 끝나도 타커뮤니티와 한인 커뮤니티를 잇는 역할을 계속 해 나아가겠다”이라며 스몰 비즈니스 지원, 저소득층 아파트 건축,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 등의 사안들에 대해서도 놓치지 말아야 한



그리스 유 후보

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는 또 미주 한인 정치인들의 당선을 축하하면서도 늦은 감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베트남 커뮤니티를 보면 한인들보다 이민 역사 20년 가량 늦었지

만, 단합된 힘으로 우리 보다 더 많은 정치인을 배출하고 있다”며 “더 많은 한인들이 정치에 입문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그리스 유 후보는 3세 때 부모를 따라 이민 온 후 초·중·고·대학교를 LA에서 졸업한 토박이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가수 상원의원 보좌관, 비영리 법률봉사단체 아태변호사협회(APABA) 사무총장, 한미연합회(KAC) 사무국장 등으로 한인사회를 위해 봉사해 왔다.

김동욱 기자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 동 희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그린카피어 리스 & 렌트**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 할인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OLYMPIC ZION AUTO**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SE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 Brake Service  
 ■ Tune-Ups  
 ■ A/C Service  
 \* 월~금 : 8AM~6PM, 토 8AM~4PM \* 32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323)730-0112, (323)735-3180**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2021년 겨울학기 한국어 학위 과정**  
 온라인수업제공/유학생 1-20 발급  
 “미국연방인가기관 ATS 정회원” (2006년 취득)  
 1천명 이상의 세계 각국 교회 지도자 및 목회자 배출, 신학적 깊이와 사역경험이 탁월한 한미 교수진

■ 모집 학위과정 및 지원자격

학위과정	지원자격
MATS (신학 석사) M.Div (목회학 석사)	교육부 인가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D.Min (목회학 박사)	교육부 인가 4년제 대학졸업자 교육부 인가 M.Div 학위 혹은 동등 학위 졸업자

■ 장학금

2021년 겨울 학기 전 입학자(25%) 장학금 혜택  
 목회자(30%) 선교사(40%) 장학금 혜택

■ 원서접수 및 합격자 발표

원서접수	2020년 11월 30일 ~ 12월 11일
합격자 발표	2020년 12월 17일(목)

■ 입학 전형료 및 수업료

학위과정	입학 전형료	학점당 수업료
MATS (82학점)	USD 50	USD 250
M.Div (126학점)	USD 50	USD 250
D.Min (55학점)	USD 100	USD 350

■ 겨울학기 일정 (10주)  
 2021년 1월 11일 ~ 3월 19일

■ 입학문의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ITS신학대학원)  
 한국어 프로그램  
 562-714-8465, 213-531-7215 / itsla125@gmail.com

■ 제출서류  
 1. 입학원서 2. 신앙 및 지원동기 진술서  
 3. 대학(원) 졸업증명서(영문) 4. 성적증명서(영문)  
 5. 추천서 (목회자 혹은 신학교 교수)  
 \* 입학서류 양식은 한국어 프로그램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형방법 서류심사

**ITS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540 E Vine Ave, West Covina, CA 91790  
 562-714-8465  
 213-531-7215  
 itsla125@gmail.com



# 추수감사절 감사를 두 배로 누린다

“감사함으로” 2020 온라인 밀알의밤  
11월 26 일(목) 저녁 8시

남가주밀알선교단(단장 이종희 목사)이 매년 가을 장애인 학생 장학금 마련을 위해 개최하는 '밀알의 밤'이 추수감사절인 오는 26일(목) 저녁 8시(미국 서부시간)부터 시작된다. 올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현장집회가 어려운 만큼 유튜브와 페이스북 생중계로 진행된다.

이종희 남가주밀알선교단 단장의 사회로, 김에스터 자매가 인도하는 '로컬찬양팀'의 오프닝 찬양, 이종희 단장의 인사말씀, 남가주 밀알수여찬양팀의 <감사함으로> 수여찬양, 이진선 한동대 교수의 메시지, 밀알장학생 Paul Shin 가족 미니타쿠, 로컬찬양팀의 클로징 찬양, 통성기도 및 축도 순으로 진행된다.

주 강사로 나서는 이진선 한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전신화상의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간증할 예정이다. <지선아 사랑해>, <오늘도 행복합니다>의 저자 이진선 교수는 이날 감사에 대한 메시지와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전한다.

행사를 열흘 앞둔 남가주 밀알은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업 처치(UP Church)에서 찬양팀 및 메인 순서 영상 녹화를 마쳤고, 밀알장학생 폴 신에 대한 인터뷰, 수여찬양팀 공연 촬영도 마치는 등 처음 맞는 온라인 행사를 비교적 순조롭게 준비하고 있다.

이종희 목사는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각자의 삶과 생업이 더욱 힘들고 어렵지만, 수많은 고통



2020 밀알의 밤을 준비하는 남가주 밀알선교단

속에서 학업에 열중하는 장애인 학생들을 위해 넉넉한 장학금이 채워질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목사는 또 “추수감사절 2020 온라인 밀알의밤에서 올려지는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감사의 고백을 통해 고난과 시련 가운데 우리와 함

께 하시는 그분의 위대한 사랑을 온몸 가득 느끼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2020 온라인 밀알의밤을 통해 모금된 수익금 전액은 장애인 학생들에게 2021밀알장학복지기금으로 지급된다. 후원은 장애학생 한 명을 1년간 후원(한 달에 \$300, 1년에

\$3,600)해 주시거나, 밀알의밤 프로그램 책자에 비즈니스 광고로, 또는 Paypal 이나 Venmo 같은 온라인 송금 서비스를 통해서도 후원할 수 있다.

문의: 남가주밀알선교단  
Tel: 562-229-0001

김동욱 기자

## “구디백에 담은 사랑, 이웃과 나눠요”

**제2차 구디백에 담은 사랑, “이웃과 나눠요”**

하나님의 사랑, 구디백에 담았습니다  
코로나19는 나의 문제이며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서로 돕고 섬기며 함께 하는 세상을 꿈꾸며,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성껏 담았습니다. 생활필수품, 마스크, 쌀, 라면, 화장지 등 작은 물질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11월 21일 토요일 오후 1시~3시**  
미주복음방송 파킹랏

**장소**  
미주복음방송 파킹랏 (매그놀리아와 라팔마 코너)  
2641 W. La Palma Ave. Anaheim, CA 92801

**일정과 전달 방법**

남가주 온유한교회 제2차 나눔 행사  
오는 21일(토) 오후 1시, 미주복음방송 주차장

감사의 계절을 맞아 남가주온유한교회(담임 장범원 목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한 제2차 구디백 나눔 행사를 갖는다.

교회는 오는 21일(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매그놀리아와 라팔마 길 코너에 위치한 미주복음방송(2641 W. La Palma Ave. Anaheim) 파킹랏에서 세정용 물티슈, 마스크,

쌀, 라면 등을 담은 구디백을 드라이브 쓰루 형식으로 이웃들에게 전달하게 된다.

장범원 담임목사는 “어려울 때일수록 작은 선물 바꾸니 하나, 따뜻한 말 한 마디에 힘과 용기를 재충전 받는다”며 “지난 9월에 있었던 제1차 구디백 행사 때보다 더 많은 분들을 섬기기 위해 충분한 수량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남가주온유한교회 장범원 목사

라식 지원하는 등 사랑의 손길을 이어가고 있다.

문의: 장범원 목사 (626) 833-7787

한편 개척 3년째를 맞이한 남가주온유한교회(담임 장범원 목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주 한인교회 14 곳을 선정해 1천 달

## 그레이스미션대학교 “추수감사절 선물 박스 신청하세요”

선착순 100명에게 도시락, 달력 및 선물 박스 전달

청 기간은 11월 18일 수요일 저녁 8시까지다.

관련 문의는 전화 714-525-0088 또는 이메일로 admissions@gm.edu로 할 수 있다.



그레이스미션대학교 행정처장 제임스 구 교수

그레이스미션대학교(이하 GMU, 총장 최 규남 박사)는 추수감사절을 맞아 핑스기빙 드 라이

브 스루(Thanksgiving Drive Thru)이벤트를 준비한다.

GMU는 선착순 100명에게 오는 24일(화) 오후 학교에서 마련한 도시락 및 학교 달력 및 선물 박스를 드라이브 스루로 전달한다.

신청은 학교 웹사이트(https://www.gm.edu/request-information)에서 입학 정보 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신

학위 과정으로 대학부과정으로 신학사(BA), 상담학 학사(BACC) 학위 과정이 있으며 대학원에는 기독교 상담학 석사(MACC), 기독교 교육학 석사(MACE), 선교학(교차문화학) 석사(MAICS), 목회학석사(M.Div) 학위과정이 있으며 박사과정으로 선교학박사(DMiss)학위와 교차문화학 철학박사(PhD)과정이 있다.

캘리포니아주 의료보험 의무화 및 미가입 벌금에 대비하세요!

**CMMI 기독교의료상조회**  
CHRISTIAN MUTUAL MED-AID  
Since 1996 Operated by Logos Missions, Inc.

\*미국 내 의사, 병원 제한 없고,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발생한 의료비 지원

문의: 이사라 213.318.0020 | www.cmmllogos.org

- 크리스천들의 의료비 나눔 사역
- 완벽한 한국어 서비스 안내
- 낮은 본인 부담금 (골드플러스 1년 \$500)

**코엠 커뮤니티 센터**  
KOAM Christian Community Outreach Center

저렴한 비용으로 도와드립니다.

- 비영리단체등록
- 비영리 단체 세금 보고
- 특허
- 주 교육국(인준) 상담해 드림

**David Lee (213)422-8916, (818)523-1119**

**APPLY or TRANSFER NOW**

**AZUSA PACIFIC UNIVERSITY**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 · 오렌지 캠퍼스**  
**ONLINE COMING SOON**

- 목회학 (MAPS)
- 목회학 석사 (M.Div)
- 목회학 박사 (D.Min)

**GOD FIRST SINCE 1899**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한국어 프로그램**

Phone: (626) 857-2200 Email: koreanprogram@apu.edu www.apu.edu/seminary/korean-program



# 공화당 영 김 후보, 미 연방 하원 의원 당선

미국 대선과 함께 치러진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 한국계 영 김(58·한국이름 김영옥) 공화당 후보가 연방 하원의원 당선을 확정했다.

캘리포니아주 제39선거구에 출마한 김 후보는 13일, 17만 2천 253표(득표율 50.6%)를 얻어 16만 8천 108표(49.39%)를 득표한 민주당 길 시스네로스 후보와 접전 끝에 승리를 확정지었다.

1962년 한국 인천에서 태어난 김 당선인은 어린 시절을 서울에서 보낸 뒤 1975년 가족들과 미국령 괌으로 이주했다. 괌에서 중학교를, 하와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던캘리포니아 대학교(USC)에 진학해 경영학을 전공하면서 캘리포니아로 이주했다.

김 당선인은 대학 졸업 후 금융계에서 일하다 의류 사업가로 변신했으며, 선거컨설턴트이자 한미연합회 전국회장을 지낸 남편 찰스 김씨의 권유로 정치에 입문했다.

김 당선인은 친한과 공화당 중진이자 캘리포니아 39선거구에서 13



지난해 6월 선거 킥오프행사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공화당 영 김 후보

선을 한 하원 외교위원장이인 에드 로이스(Ed Royce) 의원의 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해 21년을 근무했으며, 2014년에 캘리포니아주 의원에 당선돼 캘리포니아주 의회에 입성했다.

에드 로이스 의원의 아시아 정책 보좌관으로 활동할 당시 한미 자유 무역협정, 북한 인권 현안 법안, 위

안부 문제 등과 관련한 정책을 도맡으며 한국 정계에도 이름을 알렸다.

그녀는 2018년 치러진 하원의원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로 캘리포니아주 제39지구 하원 의원 출마해, 잠정 개표 결과 당선이 유력했으나 막판 우편투표가 개표되면서 시스네로스 의원에 4000표 차로 아쉽게 낙선한 바 있다.

김 당선인은 “지금까지 응원해 준 한인 커뮤니티에 감사를 드린다”면서 “앞으로 한인 정치력 신장과 한미 양국의 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 김 의원의 당선을 위해 기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았던 남가주 목회자들은 당선 소식에 일제히 기뻐하며 미국 사회에 올바른 목소리를 전

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계 목회자들은 “영 김 의원은 평소 신앙인으로나 정치인으로나 매우 훌륭한 면모를 보여왔다”며 “미국과 한인 사회 뿐만 아니라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크게 쓰임 받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공화, 민주 양 당에서 한인 정치인들이 배출됨에 따라 한인들의 정치적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젊은 한인 정치인들의 미국 정치 입문의 길을 크게 열어주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는 영 김 후보와 함께 캘리포니아 제48선거구에서 당선된 미셸 박 스틸(은주), 워싱턴 제10선거구에서 당선된 메릴린 스트리랜드(순자) 등 한국계 여성 세 명이 연방 하원에 입성하는 쾌거를 거뒀으며, 뉴저지 제3선거구에서 재선에 성공한 앤디 김 하원 의원을 포함한 총 4명이 미 연방 하원의원에 입성했다.

이미경 기자

## 미드웨스턴 CGNTV와 콜라보 '신학행' 내년 1월부터 송출

“교회를 위하여(For the Church)”라는 가치를 좇아 지역 교회와 선교현장을 섬겨온 미드웨스턴 신학대(이하 미드웨스턴)가 방송을 통해 전세계를 섬길 준비를 하고 있다.

미드웨스턴은 지난달 15일, 전세계 170여 개국에 북음 콘텐츠를 전송하는 CGNTV와 함께 신학강좌를 제작해 송출하기로 계약을 맺고 방송 제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학교 교수의 일부 강의를 방송으로 송출하는 것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신학교와 방송사가 함께 협력하여 방송을 제작하는 방식은 드문 일이다. 특별히 한국의 우수한 교단 신학교가 많음에도 CGNTV가 미국의 미드웨스턴을 방송 파트너로 선정할 것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평가다.

‘신학을 통한 확실한 행복(신학행)’으로 명명된 이번 프로젝트는 미드웨스턴의 10명의 교수가 △성경연구 방법론 △신약 개론 △구약 개론 △제자도 △기독교 상담 △목회 사역론 △교회사 △조직신학 개론 △기독교사론 △선교학 등 10개 주제로 과목 당 6편씩 강의해 총 60편으로 구성되며, 2021년 1월부터 CGNTV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미드웨스턴 아시아부의 박성진 학장은 “본 프로젝트는 ‘크리스천 전문가들이 지식과 시간의 십일조 운동을 피아 한다’는 합태경

CGNTV 본부장의 제안과 미드웨스턴 한국부 교수들의 동의로 시작됐다”며 “방송을 통해 기존 교육 시스템의 물리적 한계를 뛰어 넘어 세계 각지에서 사역하는 동역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학장은 또 “이번 프로젝트는 신학 교육과 미디어가 선교를 위해 협력하는 새로운 사례로 자리매김 하리라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미드웨스턴은 지역교회뿐만 아니라 선교적 사명에도 열정적으로 감당하고 있다. 현재 영어부 외에 한국부, 중국부, 스페인부, 루마니아부를 설립하여 100% 해당 국가의 모국어로 신학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전체 4,500명의 학생 중 한국부 재학생만 650여명에 달해 북미에서 한국어로 제공하는 학위과정 중 가장 큰 규모다. 한국부는 박사원과 석사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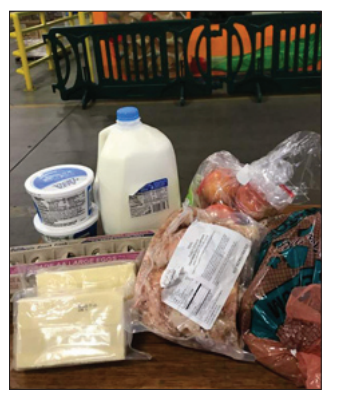
미드웨스턴 신학대 아시아부 박성진 학장

사역학 철학박사, 교육학 박사, 교육목회학 박사, 목회학 박사, 목회학 석사 과정 등 다양한 학위 과정을 제공하고 있고 북미 최고의 질적 강의를 자랑한다.

문의: Tel: 816-414-3754

## 미주복음방송 추수감사절 맞아 1만5천 파운드 음식 나눈다

오는 21일 오전 10시, 미주복음방송 본사



미주복음방송(대표 이영선 목사)는 오는 21일(토)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미주 복음 방송 본사(2641 W La Palma Ave, Anaheim CA 92801)에서 오렌지카운티 푸드뱅크와 함께 음식 나눔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추수감사절을 맞아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행사로 우유, 계란, 치즈, 요구르트, 조리된 고기, 양파, 사과, 감자 등 1만 5천 파운드가 넘는 많은 양의 음식을 드라이브 스루로 나누게 된다.

미주복음방송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작지만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달하고자 한다”며 “모든 음식물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봉사자들이 차에 실어드리며 비대면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 30주년을 맞는 GBC 미주복음방송은 방송 미디어를 통해 ‘지구촌의 한인 디아스포라 교포 사회와 열방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됐다.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의 복음통일선교도서**

빛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

Righteous Outlaw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

박성진 목사 책의 판권자

책의 추천자들: 오대현목사(예수전도단), 주선애교수(성신대 영예교수), 이영선교수(에스더대), 송정원목사(복음번대 공동대표), 김준목사(유일대), 신정원목사(복음번대 대표), 유관지목사(동일대), 김인식목사(KCC공동대표)

\* 영의 책은 아메리카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20/권 + \$5 우송료

지금까지 3만 5천부가 판매된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한/영)과 수필 ‘빛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북한 거부 출신의 자전적 스토리와 지하성도들의 순교종언으로 지역에서 찬가로 불리는 기적같은 여정이고, 우리에겐 복음통일의 완수라는 분명한 메시지의 울림이다.

\* 책코디: GBN 모든 기부금은 세금공제의 혜택을 받는 세금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기독교선교 GIDEON BROTHERS MISSION WORLD

GBMW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425)775-7477 gbmwusa@gideonbrothers.org www.gideonbrothers.org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 안녕하세요? 18년의 경력을 기반으로 고객님들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둘러보세요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8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미주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 학위과정: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MISS)
- 위치: LOS ANGELES CAMPUS, GATEWAY SEMINARY  
게이트웨이신학교 본교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8642)
- 등록마감일: 유학생 11월 1일, 미국거주자 12월 15일

> 한영 이중언어과정은

- 미래 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 본 과정은 주로 한국어로 진행되지만,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182

“팬더믹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교의 문을 여셨습니다.”

11월 11일(수) 인터콥 선교회의 미주 48개 지부 하반기 비전스쿨이 9주간의 훈련과정을 마치면서 약 400여 명 수료자들의 수료식이 각 지부별로 열렸다. 이번 비전스쿨은 팬더믹 상황이라 대면 모임으로 못하고 줌 동영상으로 동부, 중부, 그리고 서부에 본부를 두어 9주간 진행되었다. 필자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려움과 난관 가운데 더욱 넘친다는 사실을 이번 비전스쿨에서도 깨달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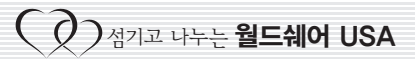
이상훈 목사
멕시코장로회신학대학장

먼저 지난봄을 회상해 본다. 2월 중순 비전스쿨이 막 시작될 무렵 미국을 포함한 세계는 우한 코로나 19 전염병의 확산이 무섭게 퍼지면서 공포에 떨었다. 각 나라들은 외국인의 입국을 막았고, 미국도 여행 불허를 결정하면서 특히 선교 대상지역인 중동 및 아시아권의 출국을 막는 상태였다. 교회들을 포함한 세계 대부분 교역자들이 막히면서 세계인은 경황하지 못한 팬더믹 공포를 경험했다. 미국도 뉴욕에서만 수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미국 전체는 모든 학교, 관공서, 비즈니스 그리고 교회의 문까지 강제 철폐를 하였다. 성도들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어 혼란스러워하였고 시간이 지난 후에 줌 동영상을 활용한 영상 예배로 교회의 예배를 대체하였다. 그렇게 지금까지 9개월이 넘는 기간을 교회들은 온전한 모임을 갖지 못하며 영상예배로 대신하고 있다. 각 선교단체의 선교 활동도 모두 얼어붙은 듯하였다.

라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면서, 8주의 과정이 지났을 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났다. 미국에서도 입국을 허락하는 나라에 대해 출국허가 명령이 떨어졌다(조건은 재입국 후 2주간 자가격리할 것이었다). 터키가 제일 먼저 입국 허락이 떨어졌다. F.O.를 신청하는 신청자들이 늘어나면서 전체 200여 명의 오피 참가자가 생겼다. 그들은 돌아온 후 2주간 자가격리 명령까지 하면서 결정한 분들이다. 각 지부별로 다시 3주간 오피 훈련을 받아야 했다. 그리고 6월, 7월에 걸쳐 2주간의 열방 단기선교를 수행한 것이다. 터키 공항은 텅 비어 있었다. 하나님의 군대만이 유스팀, 키스트, 여성팀, 일반팀, 의료팀, 중보기도팀, 샘물학교(선교사 자녀 훈련)팀, 시리아 난민팀, 이라크 난민팀, 아프가니스탄 난민팀, 이란 난민팀 등 입국 일자의 시간 차를 두고 속속 터키로 들어갔다. 결과는 예수를 영접한 영혼들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많았다. 현재의 영혼들이 팬더믹으로 그들의 집 문을 열지 않을 것을 염려한 이들도 있었다. 하나님은 말씀 통해 주님의 사람들에게 “두려워말라 염려치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시지 않았는가?

신실하신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신다. 우리 단기선교팀들이 그 땅의 영혼들에게 다가갔을 때 팬더믹 중에서도 죽음을 불사하고 자기 나라를 찾아온 우리 이방의 전도자들을 그들은 기뻐하며 환영하였다. 집으로 초대하였고 각 집들이 부흥회 장소가 되었다. 주변에 가족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하고 전도자들의 복음 증거를 들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고 그들은 기도를 받았다. 그렇게 우리의 여름철 세상은 팬더믹이라 핑퐁 묶여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군대는 복음의 나팔을 열방의 민족들에게 선포하고 돌아왔다. 그들의 눈물의 간증을 독자들이 꼭 들어 보길 바란다.(계속)

강태광목사의 인문학 강의 8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안디옥”

예루살렘에서 피난 갔던 신앙인들이 찾아가던 도시가 안디옥입니다. 교회의 요충지였고 번성하는 도시였고 번창했던 안디옥에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또한 안디옥은 문화적 사회적 환경이 피난민 유대인들이 적응하여 살기에 좋은 도시였습니다. 안디옥에 정착했던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며 모범적인 교회를 세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본받고 싶은 교회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교회 이름이 안디옥 교회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성경에 등장하는 안디옥은 두 곳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도시는 시리아 안디옥이고,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해서 회당에서 설교했던 도시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두 안디옥은 기원전 4세기 알렉산더 왕의 장군 중에 하나였던 셀쿠스 1세(Seleucus I Nicator)가 정복하고 셀쿠스 자신의 아버지 이름을 따서 안디옥이라는 도시들을 곳곳에 세웠습니다.

셀쿠스 왕조는 안디옥을 큰 도시로 세우려 하는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몇 대의 걸친 왕들이 안디옥 도시개발에 힘썼습니다. 안디옥을 개발하면서 모델로 삼았던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제가 자신의 이름을 따서 건설했던 알렉산드리아는 헬레니즘 시대 최고 도시로 성장하면서 후대 제국의 황제들이 부러워했던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출발한 두 안디옥 중에 시리아의 안디옥은 셀쿠스 왕조의 수도가 됩니다. 셀쿠스 왕조에서 가장 악명 높은 왕이었던 안디옥 4세에 의해서 더 견고한 도시가 됩니다. 역사가 폴리비우스가 ‘미친사람(Madman)’으로 불렀던 안디옥 4세는 폭군이었습니다. 이 안디옥 4세의 통치 기간에 시리아 안디옥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안디옥 4세는 유대인들을 잔혹하게 박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안디옥 4세의 통치하던 시기로 부터 시리아 안디옥은 더욱 번창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런 안

디옥의 시리아의 명성은 로마가 정복했던 기원전 64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시리아 제국의 수도로 상업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왔던 것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이 지역을 차지하면서 시리아 안디옥에 시리아 지역 주둔군의 사령부가 위치합니다. 이 시기에 안디옥은 지역에서 헬라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 잡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조셉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신약 성경 시대에 시리아 안디옥은 로마시대에 로마와 에베소,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4대 도시였으며 올리브오일 램프를 이용하여 세계 최초로 가로등을 설치한 도시로 유명합니다.

안디옥은 계속해서 발전하다가 4세기경에 올리브농장으로 경제적인 호황을 누립니다. 그러나 6세기경에 화재, 지진 등의 재해를 겪으며 몰락합니다. 안디옥의 옛 영광을 되찾으려는 노력들이 수 차례 있었지만 결국 안디옥은 회복되지 못합니다. 특히, AD 634년 아랍 이슬람이 안디옥을 정복하게 된 이후 오늘날까지 이슬람의 코란과 칼에 의해 숨통이 멎은 상태가 되고, 이슬람 모스크들이 우뚝 서 있는 이방 종교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안디옥에 정착한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적극적으로 전도하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세계선교의 모델이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당시 가장 좋은 지도자였던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는 장면은 현대 교회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모범입니다. 한

편 신약 신학자 존 마이어(John Meier)와 몇몇 신학자들은 마태가 이곳 시리아 안디옥에서 마태복음을 집필했다고 주장하지만 뚜렷한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 안디옥에서 목회하던 이그나티우스(Ignatius) 감독은 초대 교회를 대표하는 속사도 교부입니다. 이그나티우스의 담대한 순교는 교회사에 길이 남는 명장면입니다. 트라야누스 황제가 겨울 휴양지 군사도시인 안디옥을 방문하였을 때에 이그나티우스 감독의 명성을 듣고 만났습니다. 이그나티우스를 만난 트라야누스 황제는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그나티우스에게 현장에서 사형 선고를 합니다.

초기 기독교의 교부 가운데 한 사람으로 콘스탄티노플 대주교가 된 요한 크리소스톰이 안디옥에서 태어나 안디옥에서 성직자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 후 크리소스톰은 콘스탄티노플 교회 담임 목회자가 되어 탁월한 설교 실력을 발휘합니다. 교회사에서 가장 뛰어난 설교가로 알려진 크리소스톰은 로마 정부가 가장 부당스러워했던 교회 지도자였다고 합니다.

반면에, 431년 에베소 공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어 버린 네스토리우스(Nestorius)도 안디옥 출신이었습니다. 이 네스토리우스는 이단으로 정죄받은 후 이집트와 아프리카 등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다가 동양을 선교하게 됩니다. 이 네스토리우스파가 일본을 거쳐 통일 신라 시대에 한국에 전래되어서 불국사 기와장에 십자가의 흔적을 남긴 경교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여하간 시리아 안디옥은 오랜 역사를 가진 고도였습니다. 세계적인 도시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고 세계를 품는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고,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 감독에 의해서 캐톨릭(Catholic:보편적인) 교회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정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연,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이사장 : 존킴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후원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당신의 일부를 나누면 한 아이 인생의 전부가 바뀝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질병과 가난에 허덕이는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됩니다.

LA 노숙자지원, 아이티 쓰레기마을 아동지원, 수리남 참전용사 자녀돕기에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작은 나눔 (30불, 50불)으로 희망을 나누는 행복으로 초대합니다.

사랑과 성금! 행복의 비밀입니다!

World share USA가 LA에서 특별한 사랑과 성금을 시작합니다. 월드쉐어는 국제 구호 NGO 단체입니다. 월드쉐어는 UN과 함께합니다. 월드쉐어는 희망과 기쁨을 나누는 코어와 함께 빈곤 해결을 사명으로 후원합니다.



World Share USA

3123 W. 8th St. #206 LA, CA 90005 후원 문의 : 강태광 목사 T.(323)578-7933





ITS 이사진(왼쪽 왼쪽에서 세번째가 제임스 리 총장)

# “ITS에서 부르심과 섬김의 라이프를 열어가세요”

ITS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은 1982년 개교 이래 지난 38년 동안 아프리카, 아시아 국가 출신 현지인들을 위한 신학, 목회, 선교 교육에 중점을 두어왔다. 미국교수진을 중심으로 영어로 수업이 진행되어왔으며 현재 영역을 넓혀 중국어로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ITS는 이번 가을학기부터 한국어 프로그램을 새로이 구성해 제공 중이다. M.Div (목회학석사), MATS (신학석사), D.Min (목회학박사) 과정을 제공하며 모두 신학분야의 최고인가기관인 ATS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의 인가를 받았다.

현재 코비드19으로 인해 캠퍼스 수업 대신 온라인으로 수업을 제공하고 있다. 세계 각처에서 학생들이 안정적인 온라인교육시스템을 통해 캠퍼스수업과 다름없이 수업을 원활히 받고 있다. ITS 한국어 프로그램은 성경연구, 신학, 현장사역, 선교가 균형을 이룬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각 과목마다 전문적 지식과 오랜 현장사역경험을 보유한 교수진들이 강의한다는 것이 강점이다. 삶과 사역현장과 유리되지 않은 교육과 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하는 일문 일답.

### - 총장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James S. Lee, 한국이름은 이승현) 2014년에 ITS에 6대 총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세계선교에 대한 관심은 고등학교와 대학교 시절 과테말라, 멕시코, 콜롬비아로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커졌습니다. 리치몬드에는 Union Presbyterian Seminary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마쳤습니다. 선교사로 섬기려고 기도하던 중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ITS에서 2010년부터 가르치게 됐으며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을 접하면서 ITS를 통한 선교사명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 -ITS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ITS는 1982년에 세계 선교의 꿈을 품고 세워진 신학교이며 현지인들을 미국에 초청해서 양질의 신학교육을 제공하여 그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 언어와 문화장벽 없이 효율적으로 선교사역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지역사회를 예배와 선교로 활기가 넘치는 곳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지도자들을 교육, 훈련하는 것이며 개발도상국가들, 미국에 있는 다양한 소수민족들 및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 ITS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ITS는 소명감있는 선교현지 학생들을 장학생으로 선발 교육, 훈련하여 자신의 나라와 민족 속에서 영적지도력을 발휘하며 선교리더로서 역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 환경속에 있는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한인 사역자들과 지도자들을 양성합니다. 다문화, 다종언어, 다민족의 수업 환경은 초문화적 사역과 선교사역을 준비시키는 장이 되고 있습니다. 전인적인 사역(holistic ministry)의 강조는 지역사회를 교회가 끌어안고 공감하며 복음증거와 섬김으로 사명을 감당케 하는데 그 초점이 있습니다.”

### - ITS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모든 교육프로그램은 한국어, 중국어, 영어 트랙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MA, MDiv, ThM, DMin학위를 수여합니다. 연방인가기관 ATS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in North America)와 ATA (Asian Theological Association)의 정회원으로 있습니다.”

### - 교수진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교수진들도 학생들만큼이나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무부총장인 프리실라 아도요(Priscilla Adoyo) 박사는 케냐에서, 학생담당 부총장인 프리쿠마르 다마라지(Premkumar Dharmaraj) 박사는 오랫동안 인도와 싱가포르에서 교수 사역을 했습니다. 미국, 한국, 중국어 트랙별로 전문지식과 사역경험을 풍부히 갖춘 교수진들이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발전부총장 및 한국어프로그램 디렉터를 겸직하고 있는 김만태 박사(플러신학교 선교학 Ph.D.)는 스리랑카선교사 출신으로서 불교권 선교와 선교문화인류학 분야에 중요한 저술을 발표해 왔습니다. 김만태 박사는 다년간의 대학교육 행정과 WASC를 포함한 미국대학입학가 실무 경험에서 체득한 미국대학교육 시스템을 한국상황에 맞추어 ITS에 접목하고 있습니다.”

### - 졸업생 및 재학생 현황은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1000명의 졸업생들이 30개 이상의 나라에서 지역사회 지도자, 목사, 교수들로 섬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졸업생

들로 방콕성서신학교 (Bangkok Bible Seminary)에 총장으로 있는 Manoch Jangmook 박사, 탄자니아 하나님의 성회의 감독인 Bishop Barnabas Mtokambali, 네팔에 교계원으로 지도자 Sundar and Sareeta Thapa 등이 있습니다. 재학생들은 중국, 인도, 네팔, 나이지리아, 카메룬, 말라위, 케냐, 탄자니아, 태국, 미얀마 등지에서 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ITS는 유학생들에게 I-20를 발급하고 있다. 2021년 1월11일부터 한국어프로그램 겨울학기 10주가 진행된다. 11월30일부터 12월11일까지 2주 동안 원서접수를 받으며 12월17일에 합격자 발표가 있다. ITS에 대한 정보는 홈페이지 [www.itsla.edu](http://www.itsla.edu)를 참조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로는 한국어프로그램 입학과 [itsla125@gmail.com](mailto:itsla125@gmail.com), 562-741-8465, 213-531-7215로 문의하면 된다.

ITS 주소: 540 East Vine Avenue, West Covina, CA 91790  
 홈페이지: [www.itsla.edu](http://www.itsla.edu)  
 한국어프로그램 입학과 [itsla125@gmail.com](mailto:itsla125@gmail.com), 562-741-8465, 213-531-7215

## 2020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홍준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irus.edu](http://www.irus.edu), [office@irus.edu](mailto: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회(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석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경호 박사 71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이사장: 조종관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http://www.aeu.edu/info@aeu.edu), [seumaster@gmail.com](mailto:seumaster@gmail.com)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상담사역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s.edu](mailto:ks@mb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http://www.ptsa.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http://www.wmu.edu), [admissions@wmu.edu](mailto: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http://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mailto: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24 / [KEB@GGTS.EDU](mailto:KEB@GGTS.EDU)  
[WWW.GGTS.EDU](http://WWW.GG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mailto:admissions@gm.edu), [www.gm.edu](http://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 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626)857-2200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http://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mailto:chdailya@gmail.com)



# 아프리카 UMC '독자적 미래' 성명 발표...미국과 거리두기

미국 연합감리교(The United Methodist Church, 이하 UMC)에서 일부 아프리카 주교들이 독자 노선을 택하겠다는 성명을 최근 발표했다.

미국 뱀티스트 프레스에 따르면, 지난 5일 짐바브웨의 에벤 니와티와(Eben Nihwatiwa) 주교 등 일부 감리교 주교들은 아프리카 연합 감리교단의 미래와 관련하여 "우리스스로 선택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UMC 글로벌 사역 총회의 선교 신학자인 데이비드 W. 스콧(David W. Scott)은 아프리카 교회 지도자들의 새로운 입장이 종파 분열을 막으려는 UMC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해석했다.

스콧 교수는 이번 성명이 "분리를 통한 화해와 은혜의 프로토콜이 제시한 선택을 거절한 것"이며 "미국의 전통주의자, 중도주의자, 진보주의자 모두를 질책한 것"으로 해석했다.

그는 또한 "(아프리카)주교들이



지난 2013년 5월에 열린 미국 연합감리교(UMC) 총회에서 기도회를 열고 있는 목회자들. ©UMC

각자의 길을 정하겠다는 입장을 단언한 것"이며 교단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동등한 권리를 주장하는 의미로도 해석했다.

스콧은 UMC의 현 상황이 "미국의 전통주의자들과 중도주의자 및 진보세력 사이의 양방향 갈등이 아니라, (소그룹의 다른 관점이 추가된) 3자 갈등으로 보아야 한다"고

정리했다.

수십 년 간, 교단 내 전통주의 입장의 교회들은 보수적인 성 관념을 지지하는 아프리카 UMC와의 연합을 공고히 해왔다. 그러나 최근 10년 전부터, 미국 교단은 회원수가 감소한 반면, 아프리카 교단은 더욱 성장하면서 전통주의 연합 간에도 분열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스콧

은 분석했다.

최근 몇 년간, UMC는 동성결혼과 동성애자의 성지 허용을 둘러싸고 보수와 진보 교회간에 대립이 이어졌고, 2019년에 우호적인 결별을 위한 '화해와 은혜의 의정서'가 채택됐다.

이 의정서에 따르면 보수 성향의 교회들은 UMC를 탈퇴하고 교단 자

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2천5백만 달러를 받고 새로운 교단을 만들게 된다.

보수 성향의 '웨슬리안 언약협회(Wesleyan Covenant Association, WCA)'는 교단의 친동성애 세력과는 공존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독립을 준비해 왔다.

그러나 계획을 주도했던 시에라리온의 감독인 존 암바수(John K. Yambasu)가 8월 16일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코로나로 인해 총회마저 내년으로 연기되자 의정서는 1년 동안 유명무실해졌다.

스콧 박사는 이에 대해 "아프리카 연합 감리교 지도자들은 성에 대한 입장 때문이라도 새로운 전통주의 교단에 가입해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매체는 끝으로, 연합 감리교의 내부 갈등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고, 2021년 총회까지 가는 여정은 어느 때보다 험난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유진 기자

# 바이든 대통령 취임할 경우 친낙태 정책 예고

## '멕시코 시티 정책' 철회, 낙태 제공 단체에 자금 지원 등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이 내년에 대통령에 취임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친생명(pro-life)' 정책에 변화를 예고했다고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CP)가 10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2020년 미국 대선 공식적인 결과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바이든 후보는 여러 현직 언론 매체에서 승자로 선언되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의 팀은 이미 조기 행정 조치 관련 섹션을 포함한 '바이든 행정부 의제'를 공개했다. 이 안건은 트럼프 행정부의 낙태 반대 계획 중 일부를 철회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CP는 보도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바이든 전 부통령은 취임 후 "멕시코 시티 정책을 철회하고, 낙태 제공 단체인 '플랜드 페어런후드'에 자금 지원을 복원하고 건강보험개혁법(ACA)에 따른 피임 보험을 포함한 낙태 및 생식 건강 관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를 뒤집을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멕시코 시티 정책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정부에서 최초로 시행되었던 정책으로 기본적으로 미국의 해외 원조를 받아 여러 단체들이 낙태를 시술하거나 가족계획법의 일환으로 낙태를 장려하는 것을 막는



연설하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오른쪽)와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자. ©SNS

정책이다.

멕시코 시티 정책을 철회한다는 바이든 전 부통령의 약속은 이전의 두 민주당 출신 대통령의 정책과 일치한다. 민주당 후보였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1993년 취임하자마자 멕시코 시티 정책을 철회했다. 그의 후임자인 공화당 출신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2001년 대통령 취임 후 이 정책을 부활시켰다.

그러나 민주당 후보였던 버락 오

바마 전 대통령은 2009년 첫 임기가 시작되자 멕시코 시티 정책을 철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 4년 전인 취임 직후 이 정책을 복원시켰다.

올해 초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 시티 정책을 확장해 글로벌 의료 자금을 제공하는 모든 계약 및 하도급 계약에 적용 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2019년 트럼프 행정부는 '생명 보호'(Protect Life) 규칙을 제정해 '타이틀 X' 가족 계획 기금을 받

는 의료 시설이 가족 계획의 한 방법으로 낙태를 수행, 홍보 또는 언급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미국 최대의 낙태 사업체인 '플랜드 페어런후드'(Planned Parenthood)는 이 규칙을 준수하는 대신 '타이틀 X' 프로그램에서 탈퇴했다.

낙태 후원 단체인 '플랜드 페어런후드'에 자금 지원을 복원하겠다는 바이든 전 부통령의 계획은 '생명 보호' 규칙이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음을 의미한다고 CP는 전했다. 또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에 따른 피임 의무를 복원할 경우, 종교 단체 고용주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반해 소속 직원의 건강 보험 플랜에서 피임 보험료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바이든 전 부통령은 전국적으로 미국에서 낙태를 합법화한 1973년 대법원 판결인 '로 대 웨이드'(Roe v. Wade)를 성문화하고 낙태 시술에 지불되는 의료 자금을 제한하고 있는 '하이드 개정안'(Hyde Amendment)을 폐지한다는 약속을 표명해 왔다고 한다. 두 제안 모두 의회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제정한 친생명 정책을 철회하는 것 외에도 비판적인 인종 이론 교육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테러에 취약한 국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여행 금지 명령을 종료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세계보건기구(WHO)와 파리 기후 협약에 재가입하기를 원하는 바이든 전 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적인 마스크 착용 명령을 시행하는 과감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이미경 기자

**앞서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 헤어 컬러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편리한 위치 -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컬러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 헤어컬라 전문점

헤어 컬러  
**\$40 up \$20 up**

\* 단, 컬러만 하시면 \$40<sup>up</sup>

매직 스테이트  
**\$120 up**

프로페셔널- 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컬러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컬러만 실제 사진들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 stylist**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 까지 10:00 AM ~ 8:00 PM  
**Tel: 213-739-1022**



# 美 감리교, 재정·동성에 문제로 새 주교 선출 2024년까지 연기



지난 2019년 2월 14일 미주리주에서 열린 특별회의의 모습. ©미연합감리교

미국 연합감리교(UMC) 지도자들이 재정 문제와 동성에 이슈로 대한 분열 가능성을 우려해 새 주교 선출을 2024년까지 연기할 것을 제안했다고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CP)가 12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UMC 주교위원회는 11월 2일부터 5일까지 가상회의를 열고, 아프리카 지역의 대규모 교회 성장에 대응해 이 지역에 더 많은 주교를 선출하는 계획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새 주교 선출과 임명을 연기하는 총회의 권고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이를 "성공회 기금에서 주교 급여와 혜택에 따른 약 1천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는 '풀뿌리 운동'이라고 설명했다.

또 "아프리카에서 승인된 5명의 주교 중 자원을 비롯해, 필요한 기반 시설이 확보된 경우에만 총회에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중앙회와 관련 상임위원회에 권고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가상회의에는 115명의 감독들이 참석했으며, 미국, 아프리카, 아시아 및 유럽에 기반을 둔 지역 기구들을 대표했다.

한편 지난 5월 UMC 재무행정협의회는 4월 기부금이 전년 동기간에 비해 26% 줄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강혜진 기자

# 미 GMO, 디지털 복음전도 캠페인 활발... 3천만 명 전도 목표



GMO 웹사이트. 이 단체는 디지털 복음전도 캠페인을 통해 3천만명을 전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Global Media Outreach

미국 온라인 전도사역 단체인 '글로벌 미디어 아웃리치(Global Media Outreach)'가 혁신적인 전도 캠페인을 위해 세계적인 사진 작가와 협업한다고 크리스천 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GMO는 2004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20억 개가 넘는 온라인 복음 프리젠테이션 자료들을 제작해왔다. 최근에는 '메시아와 함께하는 여행'의 제작자인 사진작가 마이클 벨크(Michael Belk)와 '더 나은 것을 위하여(Something Better)' 프로젝트를 위해 협업을 시작했다.

GMO 최고 마케팅책임자 랜디 발렌타인(Randy Valentine)은 CP와의 인터뷰에서 "새 캠페인은 복음 메시지와 1세기의 예수가 21세기의 사람들과 교류하는 사진을 결합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복음서는 그 자체로 너무나 설득력이 있지만, 그것을 현대의 개인들과 교감하는 예수의 모습들과 결합한다면, 정말 잠시 멈추고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될까? 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플랫폼은 다양한 주제별 웹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휴대폰 네트워크, 인터넷, 소셜미디어를 통해 벨크의 사진과 함께 다양한 복음 자료를 디지털로 배포할 수 있게 했다.

벨크는 이 캠페인의 목표에 대해 "더 나은 무언가를 희망하는 미국의 모든 사람

들에게 예수가 그것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복음을 선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과학적으로 사람들은 단어를 보고 침묵된 이미지를 본다. (기억)보존률은 단순히 복음에 대한 문구 또는 이미지만 보는 것보다 훨씬 높다"면서 "이 두 가지를 결합하면 정말 강력하다"고 말했다.

벨크는 보그, GQ, 엘르 등 주요 잡지에서 활동한 패션 사진작가로서, 자신의 사진이 예수의 메시지를 오늘날과 연관될 수 있도록 탐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난, 물질주의, 중독, 위선과 같은 현대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문제가 되는 현대인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합성하기도 했다. 그는 이 사진들이 "예수님은 우리가 직면한 모든 문제보다 더 큰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준다"고 말했다.

GMO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1억 5천만 미국인과 연결되고, 3천만 명이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을 결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발렌타인은 지난 달까지 "더 나은 것" 페이지의 접속자 수는 8만3,699명에 달했으며, 그 중 2천 여명이 GMO의 온라인 선교사 3,500명과 연결해 예수님과 관계를 진전시키는 데에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 교회혁신교회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심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암회침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 245-6616

주일예배 오전 11:00  
교목부 예배 오전 11:00  
평신도 리더십훈련 매주 수 오후 7:00  
금요 말씀과 삶 공부 오후 7:00  
토요일침례 오전 9:00

**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A, CA 90010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내세대에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오전 6:20(토)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일(7:00) (수) 오후 7:30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2인2세를 책임지며, 이방이방을 치유하며, 선교영광을 증행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dson 교차)  
T. (213) 386-2233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 - 토)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함,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h St. #412 (6가와 카탈리나), LA, CA 90020  
T. (213) 909-6473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3:30  
Heart of David 금요일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교대  
1340 E 6th St, #419, LA, CA 90021  
T. (310) 905-2228 / newchurchdtda.com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합세회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토)  
3부예배 오후 2:00 유초등부 오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0:30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그리스도와 / 성도와 / 이웃과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토) 오전 6:0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1와 Rampart Blvd 교차 북동쪽 우회)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9:00 성인 EOM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11:00 한아침년예배 오후 12:30  
친양예배 주일오후 2: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치유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T. (323) 634-9191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 11:00

**차성구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 되어 십자가 복음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주일 1부예배 (분당)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분당)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분당) 저녁 8: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리듬예배(말미에) (소예배실) 오전 11:0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87-1700 C. (213) 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라티노 오후 6:3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30(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흠뻑 소.신.초 정신의 흠뻑, 바른교회관의 흠뻑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 예배 오전 10:30  
2부 예배 오후 1:30  
성경 공부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신도모이기 만민부 지역 유일한 한인교회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영혼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 502-9999 / www.smkc.us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 LA 동부, 라스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sunhan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갯스윌연합교회**  
여호와를 찾을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달리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유초등부/유치부 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냄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토)

**우영화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조용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안 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일출강예배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 6:30(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 / inlandchurch.org

**고송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종교동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이훈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조준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수요기도회 오후 7:30 오전 6:30(토)  
중국어 성경공부 오후 7:30(화) 汉语圣经班: 周二晚上七点半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5135 Edison ave, suite 13, Chino, CA 91710  
T.(714)461-6412

**송재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11:00 금요일(가)도회(마)지(주) 오후 8:00  
종교개혁주일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벨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7:00 JCOCC Academy  
주일 2부 오전 9:00 2부 오전 10:15, 오후 12:45 (교육관)  
주일 3부 오전 11:00 EM 오전 11:15 (교육관)  
Blended Service)  
사랑부 오전 8:45 (교육관)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동아여 내 길에 빛이이다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 (818) 662-0400 www.joyfulcc.org

**이정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종교동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아침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 F.(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방수민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양배 배 오후 8:00(금)  
종교동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베다니한인교회**  
문턱낮은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윤대혁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 오전 9:30 사랑의 빛 반 주일 오전 11:30  
주일 3부 오전 11:30 금요일성경회 오후 7:45  
젊은이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www.lolmc.org

**오명찬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일성경회 오후 7:30 한아침년 주일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곽덕근 담임목사**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최 혁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MP예배 333 S. Garfield Ave., Monterey Park, CA 91754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성경공부 오전 10:00, 2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성경회 오후 7:30 주일양배 배 저녁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 토 오전 6:00 588 Altiss Ave., Monterey Park, CA 91753  
1954 Hinal St., Northridge, CA 91326 새벽기도회 오전 5:30 / 토 오전 6:00  
T. (818)935-5887 T. (818)937-3900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민중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사우스베이, 토렌스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유년부예배 오전 8:40

**가디나선교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신태섭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유년부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종교동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년부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가디나 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310)217-9191 www.gpclove.com

**이석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 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9:45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전 11:00

**나성금란교회**  
기쁘고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종교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양배 배 오후 7:30  
EM 1부 9:30/ 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310) 719-2244 / dkpc.org

**서보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년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강신권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김경환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이동진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일양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EM예배 오전 11:00 오전 5:40(토)

**성화장로교회**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만나며, 함께 걷는 믿음-사랑-소망 공동체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310) 515-1191 www.sunghwachurch.org

**박성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EM예배 오전 10:45 금요일성경대강회 금 오후 7:20

**주님세운교회**  
처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17910 Prair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이상훈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일 중/고등부 오전 7:30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90247  
T. (714) 296-6783 www.sbhivision.org

**이종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양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 530-4040 / F.(310) 530-8400 / cornerstonetm.com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 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주일 3부 오전 11:00  
EM예배 1부 오전 9:30/2부 오전 11:0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 美, '인권 탄압 혐의' 홍콩 관료 4명 추가 제재



시위에 나선 홍콩 시민들의 모습. ©Unsplash

미국은 9일 홍콩 내 인권 탄압 혐의로 홍콩 관료 4명을 추가 제재키로 했다고 AP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이날 제재 대상으로 덩중화 홍콩-마카오 사무관공실 부국장, 에드위나 라우 홍콩 부경찰청장, 리지양조우, 리콴이와 홍콩 국가보안실 직원 등의 명단을 공개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이들은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집행하는 데 조력했기 때문에 제재 대상

이 됐다"며 "미국 여행 금지와 함께 미국 내 자산 동결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홍콩 주민의 자유와 홍콩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한 이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8월 캐리 램 홍콩 행정장관에 대해서도 민주화 운동을 탄압했다는 이유로 이와 유사한 제재를 가한 바 있다.

강혜진 기자

### 모잠비크서 IS 공조 단체가 주민 50여명 참수



모잠비크의 부녀자들(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Pixabay

이슬람국가(IS) 연합 무장세력이 지난 주말 아프리카 남부 모잠비크에서 50여 명을 참수하고 수십 명을 납치했다고 크리스천 포스트가 현지 소식통들을 인용 해 보도했다.

모잠비크의 경찰 지휘관인 베르나르디노 라파엘(Bernardino Rafael)은 9일 언론 브리핑에서 극단주의자들이 카보 델가도 지역의 미우 톰베와 마코미아 지역의 여러 마을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테러범들은 50명이 넘는 사람들을 참수했으며 남은 여성들과 어린이들을 납치하고 가옥들을 불 태웠다고 보고했다.

BBC, 알자지라(Al-Jazeera)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테러범들은 집을 불태우자 숲으로 도망치던 마을 주민들을 붙잡아 무참히 살해한 뒤, 시신들을 토막낸 것으로 전해진다.

알자지라는 현지 경찰들이 숲에서 20여 구의 시신을 발견한 제보자의 신고를 받고서야 학살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국영방송인 모잠비크 통신은 지난 6일 밤 테러범들이 "알라가 최고"라는 뜻의 아랍어 문구인 "알라후 악바르(Allahu akbar)"를 외치면서 난지바 마을을 급습했다고 전했다. 무장 세력들은 이날 밤 2명을 참수하고 여러 명의 여성을 납치했으며 가옥들을 파괴하는 등 동일한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카보 델가도 주는 인도양 연안에 석유 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2017년부터 급증한 지하디 세력의 테러 공격으로 인해, 수 천명의 이주민과 수백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4월에도 이 지역에 서만 52명이 학살을 당했고 일부는 참수되었다.

이 지역 내에서 모잠비크 보안군은 소말리아에 기반을 둔 무장단체인 '알부 순나 월 잠마(ASWJ)'와 대치하고 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ASWJ는 지난해 IS에 충성을 맹세하고, 중앙 아프리카 지

부에 편입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이번 공격이 IS와 얼마나 연계되어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유엔은 앞서 지난 3년간 무차별적인 테러 활동으로 인해 카보 델가도 지역 내 수백 개의 마을이 불에 타거나 버려졌다고 경고했다. 국제 엠네스티는 지난달 발표에서 2017년 이후 테러로 인해 2000명이 사망하고 3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모잠비크 정부는 지난 5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과의 전쟁에서 아프리카 지역의 도움을 공개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필리프 니우시(Filipe Nyusi) 모잠비크 대통령은 올해 초 열린 아프리카 지도자들과의 면담에서 "당신은 테러리즘과 혼자서 싸울 수 없다. 이것이 우리가 겪은 경험"이라며 "우리는 지역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전체를 위해 힘을 나눠야 한다"고 당부했다.

ASWJ 무장 세력은 지난 8월 석유와 가스 장비 수송에 중요한 지역인 '모킴보다데 프리아아 항구'를 급습하여 이 지역을 일시 장악했다. 또 10월에는 약 300명의 ASWJ 무장 대원들이 카도 벨 가도 국경 인근의 탄자니아 마을을 공격했으며, 군인 3명을 살해하고 군사 장비들을 강탈했다.

미국 뉴욕에 위치한 '반극단주의 프로젝트'가 발표한 보고서는 "모잠비크 정부는 증가하는 과격 저항 세력에 대항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경고하며, 모잠비크의 보안군이 훨씬 더 많은 반란 세력들을 보고 테러 현장에서 도망했다고 보고했다.

지난 몇 년 간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공격은 급증했으며 특히 나이지리아에서는 보코하람과 IS로 인해 수백만 명의 주민이 추방을 당했다. 부르키나파소와 같은 사헬(Sahel) 지역 국가들도 급진적인 테러 공격으로 인해 이재민 수가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 연세대 언더우드 동상 '할러윈 분장' 으로 훼손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한 연세대학교 설립자인 언더우드 선교사 동상이 '할러윈 분장'으로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연세대 언더우드관 앞 설립자 언더우드 동상에 데드폴 가면을 씌우고 토르 망치를 쥐게 한 모습. ©독자 제공

할러윈이었던 지난 10월 31일, 연세대학교 교정 내 언더우드관 앞에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 동상에 누군가 캐릭터인 데드폴 가면을 씌우고 토르 망치를 들게 한 것. 이후 가면과 망치는 사라졌는데, 자진 철거한 것으로 보인다.

'데드폴'과 마블 코믹스 등장인물로 '제4의 벽'을 파괴하는 4차원적 캐릭터이며, 천둥의 신 '토르' 역시 마블 코믹스 슈퍼 히어로이다.

학교의 설립자이자 기독교 정신을 상징하는 기물에 정반대를 상징하는 '장난'을 친 것이 적절한가 하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기독교 일부에서는 '할러윈'에 대해 악마와 악령을 숭배하는 축제라며 비판하는 이들이 있는 상황에서 적절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다.

학내 구성원들 의견도 부정적이다. 대학생 중심 커뮤니티에 해당 사진이 게시되자, 학생들은 "선교사에게 왜 굳이 귀신 분장을 시키는가", "홍물스럽게 보인다", "기독교 학교에서 저런다고?", "표현의 자유는 개인 영역에 해야 한다", "공공성을 해치는 이기주의" 등 심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반면 "매일도 아니고 하루 쯤인데 뭐 어쩐가", "성남 유쾌하시네", "데드폴이 토르 망치 들었네 끝났다" 등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도 일부 있었다.

학교 측은 이에 대해 "해당 사실을 인지했고, 누가 설치했는지 파악하는 중"이라며 "설치 주체가 학생인지 아닌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징계 여부를 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매년 한 중앙 동아리에서 꾸미는 것으로 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호박을 씌워뒀던데..." 등으로 범인(?)을 추측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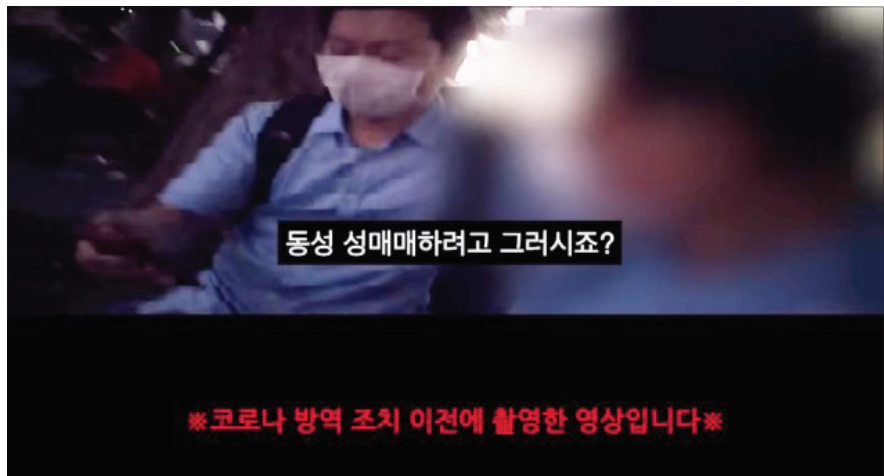
동상이 세워진 언더우드 선교사(Hor-

ace Grant Underwood, 1859-1916)는 1885년 당시 조선에 최초로 도착한 서양 선교사로, 이듬해인 1886년 고아 학교를 세웠다. 이 학교는 경신학교를 거쳐, 1915년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로 발전했다. 그는 연희전문학교 초대 교장을 지냈다.

1881년 뉴욕대, 1884년 뉴브런즈윅(New Brunswick)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다. 1887년 평양과 의주 일대를 순회 전도했고, 새문안교회 등 여러 곳에 교회를 세웠다. 저서로는 <한국어 소사전(A Concise Dictionary of the Korean Language)>, <한국선교 23년(For Twenty-three Years, a Missionary in Korea, 1908)> 등이 있다.

지난 2016년 11월에는 언더우드 선교사 일가가 살던 연희동 사택을 복원, 개조해 만든 언더우드 기념관에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기념관에는 훈장과 타자기, 언더우드 일가가 사용한 공책과 안경, 도장 등 다양한 유물과 사진, 문서들이 전시돼 있었다. 당시 복구에 1년 가까이 소요됐으며, 화재 후 6개월 가까이 방치돼 있었다는 보도도 나오기도 했다.

# 대형교회 안수집사, 동성 성매매 현장서 발각



동성 성매매하려고 그러시죠?

※코로나 방역 조치 이전에 촬영한 영상입니다※

레인보우리턴즈 염안섭 원장(수동연세요양병원)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영상. ©레인보우리턴즈

교회에서 중직을 맡은 한 성도가 동성 성매매를 시도하는 현장을 레인보우리턴즈 염안섭 원장(수동연세요양병원)에 의해 포착됐다. 염 원장은 해당 인물이 서울의 한 대형교회 안수집사이자 성가대원이라며 교회가 동성애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경고했다.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영상에는 해당 인물이 성매매자로 위장한 레인보우리턴즈 관계자들과 약속을 잡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 현장에서 맞닥뜨린 염 원장과의 대화를 통해 잘못을 시인하고 전문상담을 받겠다고 약속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염 원장이 "왜 이런 생활을 하게 되었느냐"고 묻자, 해당 인물은 "처음에는 동성애 쪽에 별로 생각이 없었는데 많이 외롭다 보니 그렇게 됐다. 아내랑 떨어져 있는 시간도 많고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됐다"고 답했다.

그는 "30대 초반부터 (동성애 성매매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며 "채팅 같은 것을 통해 동성애자, 트랜스젠더도 만나고 했는데, 끊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마음이 쉽게 안 되었다.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다. 많이 반성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염 원장이 "왜 하필 동성애인가"라고 묻자 그는 "(어릴 때 성추행을 당했다거나) 그런 건 없었는데 아무래도 일반 여자들보다 가격이 싸니까(동성애에 특별

히 거부감도 없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성경적 가르침과 부딪힌다는) 그런 생각은 들었는데 외롭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그렇게 행동한 것 같다. 전에는 특별한 죄의식이 없이 행동한 것 같은데, 지금 돌아켜 보니 저의 잘못된 행동들로 성경적인 어떠한 것들이 파괴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여기 계신 분들한테도 죄송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염 원장은 "트랜스젠더나 시디(Cross Dresser, 이성의 의복을 착용해서 성적인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이 유부남들한테 적극적으로 성매매 제안하는 것을 문제가 있다고 본다. 성욕을 잘못된 방법으로 해결하고 싶어하는 남성들이 있다.싼 가격에 몸을 팔겠다고 하면 그걸 유혹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료로 상담할 곳을 알려드리겠다. 하나님이 저희를 보내주셔서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 생각해 달라"고 했다.

염 원장은 영상을 마무리하며 "한국의 복음주의권 대형교회도 동성애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분들이 교회가 차별금지법을 막는대거나 동성애 반대 의견을 갖는 것을 막으려고 애쓰지 않겠느냐. 한국교회는 성도 눈치 보지 말고 오직 복음만 바라보고 동성애를 막는 일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송경호 기자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KM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5:3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레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org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 O.C., 엘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오후 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30  
새벽예배(월-금) 오전 5:30

**민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 (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예배(EC) 오전 9:30,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6: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벨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EC)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저녁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

**이 일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복음 생명의 열매를 심어 새생명체 사모, EBSIS 복음의 열매를 심어 새생명체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생령 성령의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령회 오후 8:00  
한국학교 주일 오후 1:30

**왕상윤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  
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T. (949) 829-0010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주일 오전 6:00

**최순길 담임목사**

**LA 임마누엘교회**  
562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0  
T. (714)743-0141

1부예배(EM) 주일 9:00am  
2부예배(KM) 주일 11:00am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 1부 예배: 오전 9: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유년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안상희 담임목사**

**남가주늘사랑교회**  
Everlove Baptist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46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92833  
T. (714) 525-0191 / www.ebsoca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30(화-금)

**김일권 담임목사**

**다감사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633  
T. (714)988-3321, (562)896-1665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Youth / College 주일 오전 11:00

**안성복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어린이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제자성회 오전 9:30(금)  
중보기도 오전 9:00(목)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00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 예배 오전 11:00  
English Ministry 오전 11: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정기봉 담임목사**

**샘물교회**  
풍성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공동체  
15151 Cordova Rd, La Mirada, CA 90638  
T. (714)749-7770 www.saemmoool.church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박신용 담임목사**

**엘바인은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30  
FAM에 오전 11:30(청년 영예)

**엘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07:30  
2부예배 오전 09:2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영아) 오전 10:00  
3부예배 오후 11:45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신원규 담임목사**

**좋은마을교회**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92886  
T. (714)646-9259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5:30(월-금)  
오전 6:00(토)

**박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문/사/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2020학년도 가을학기

##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수있습니다.

### 학생수시모집

#### 본교 지원시 특전

- 1) RPCA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 2020 가을학기 강의시간표

Day	Time	Class	Professor
Mon	7:00 PM - 9:00 PM	조직신학(서론, 신론) Systematic Theology I	Elijah Kim
Tue	7:00 PM - 9:00 PM	교리, 목회서신 Catechesis, Pastoral letter	James Lee
Wed	8:30 PM - 10:30 PM	사무엘 상, 하 Samuel 1st and 2nd	Timothy In Song
Thu	7:00 PM - 9:00 PM	현대신학 3 Modern Theology 3	David Lee
Fri	8:30 PM - 10:30 PM	예배학 Christian Worship	Jong Yong Kim
Sat	7:00 PM - 9:00 PM	리포트, 논문 Rearch & Writing	Young Joon Ko

\*청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각 과목당 \$100씩으로 청강하실수있습니다.

신학학사과정 (B.Th)

목회학석사과정 (M.Div)

목회학박사, 교육학박사, 신학박사, 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 (NYTS)

상담전화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 TEL:213-272-6031



###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진 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No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나 시선을 '무시'함을 통해서 확실한 '경계'를 세워야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경계 없는 열심, 경계 없는 집중은 다 허무로 흐르게 되고, 심지어 거짓과 위선의 죄에 끌려가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왜 '경계'를 못 갖는가 하면 사람에게 너무 예민해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경계를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1:10) 요즘은 갈수록 SNS 등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정보가 넘쳐나기 때문에 늘 비교하면서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남의 시선에 더욱 예민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나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등 마음의 병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지나치게 예민하지 않으려면 사람보다 더 큰 존재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구세주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문제에서도 구원이 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천국 가는 예수는 믿으면서도, 현실의 삶에서의 예수는 잘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의 삶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너무 힘들고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짜 나'를 만듭니다. 현실의 문제로 힘들고 아파하는 나를 감추거나 현실의 문제를 피하려고 합니다. 아무 일도 없는 척 자신을 가리고, 팬츠는 척하는 '가짜 나'로 사는 사람일수록 교회에서는 더 거룩한 척 하게 됩니다. 의인인척 하기 위해 남의 실수나 허물에 과잉 반응을 하고 늘 남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이렇게 '가짜 나'로 가면을 쓴 신앙생활을 하면 온종일 예배하는 주일날,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피곤하고 힘들기까지 한 것입니다.

깊은 하나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히 별거벗김을 당하고 침 뱉음과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당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을 쓴 채, 온 몸에 채찍을 맞아 피투성이가 되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히고, 옆구리에 창 찔려 죽으신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나도 만나고 싶지 않은 나, 나의 죄, 거짓, 음란, 비겁과 위선, 미움과 분노, 욕망과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 수치와 연약함 등, 내가 애써 회피하려고 했던 진짜 나의 모습을 다 용서하고 품어주는 분이 십자가의 예수님입니다. 어떤 죄와 사망 가운데 있어도 만날 수 있고 하소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면 '가짜 나', 나의 '예고'에 급이 갑니다. 그 틈 사이로 예수생명이 조금씩 흘러들어 옵니다. 이상하게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면 하염없이 기도가 나옵니다. 10분 지난 줄 알았는데 몇 시간이 지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완전히 '예고'가 깨어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온라인 새생명 전도 축제'는 바로 이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는 축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심을 주시는 하나님



송재호 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로 다르지 않습니다. 잠시 로비에 나와 들었던 음악에 대해 친구들과 가벼운 담소를 나누거나 아니면 화장실에 다녀오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종이 울리면 그들 모두는 서서히 어두워지는 공연장의 음악 세계로 들어갑니다. 다시금 치밀하고 열정적인 연주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국어문법에도 다양한 기호표가 사용됩니다. 느낌표, 물음표, 마침표, 쉼표 등이 그것들입니다. 놀라움이나 감탄을 나타낼 때 그래서 그것을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고 긴 여운과 함께 남기고 싶을 때 우리는 느낌표(!)를 사용합니다. 겨울밤 저 멀리 떠 있는 수천 수만의 별들을 보면서 우리는 광활 광대한 우주의 신비와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대해 경이와 경탄으로 반응합니다.

이리저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수수께끼나 의문되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물음표(?)를 사용합니다. 그렇게 광활 광대한 우주 속에 사람이 무엇이기엔 하나님은 사람을 기억하시고 찾아오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겸허하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면 왜 이리 이 세상은 부조리와 고통으로 가득 할까하고 질문합니다. 때로는 확신에 찬 주장을 하고 싶을 때, 아니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마칠 때 우리는 종지부(終止符)라 불리는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리고 연필을 가지런히 책상에 놓습니다.

이런 기호들은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띵니다. 물음표, 느낌표, 마침표 등은 잘 알려진 '유명'한 기호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 별로 띄지 않는, 그러나 이것이 없으면 숨이 차서 죽게 될 수도 있는 표가 있습니다. 쉼표(,)입니다.

호흡을 고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한 전환의 기호입니다. 쉼표는 언제나 그랬듯이 경탄하지도, 대들지도, 종지부를 찍듯 단호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쉼표가 없는 삶은 언제나 큰소리, 요란, 다름, 미움, 열정, 뜨거움 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삶은 결코 삶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마태복음 11:28-30

음악회에 가본 사람이면 공연 중간에 Intermission이란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피아노 연주장에서 있는 일입니다. 관객은 기대와 흥분으로 피아니스트의 신들린 듯한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C 단조 연주에 몰입합니다. 피아노 건반을 격렬하게 두드리는 상기된 연주가의 얼굴에는 구슬땀이 송송 맺힙니다. 세 번째 악장의 마지막 소절이 장엄하게 끝을 맺습니다.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치며 열광합니다. 그리고 관객들은 일어나 삼삼오오 어디론가 갑니다. Intermission 시간입니다. 연극에서는 막간(幕間)이라 불립니다. 악보로 치자면 휴지부(休止符)입니다. 악보에서 소리를 내지 않고 쉬는 사이를 나타내는 표를 말합니다.

이 중간 휴식시간은 연주하는 사람들이나 객석에 앉아 있는 관람자들 모두에게 잠시적인 기쁨과 여유를 주는 시간입니다. 연주가의 입장에서 이 시간은 긴장으로 굳어진 온 몸을 넉넉하게 이완시키고, 풀어졌던 스트링을 다시 조이며 후반부 연주를 심호흡하며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관객 역시 별

#### 정성욱 교수의 조직신학 에세이

## 성화과정에 대한 신학적 분석



덴버신학대학원 정성욱 교수

사람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과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회심 (conversion)의 사건이 일어난다. 이 회심의 순간, 죄사함, 거듭남, 성령의 인치심과 내주 (성령세례), 그리스도와 연합, 칭의, 양자됨, 확정적 성화의 사건들이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난다. 이어서 성도는 점진적이고 실제적인 성화의 과정에 진입한다. 성화의 과정은 죽었던 죄인의 영혼이 거듭나 새로운 생명을 얻은 후 영적으로 자라나는 과정이다. 거듭남과 중생의 사건에서 성도는 완전히 성숙한 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영적인 어린 아기 (spiritual baby)로 태어나게 되며, 계속적인 영적 성장 (spiritual growth), 영성형성 (spiritual formation) 그리고 영적 성숙 (spiritual maturity)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성도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영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성격, 기질, 태도, 생각, 언어, 행동

에 있어서 실제적인 변화를 경험하며 영적으로 자라게 된다.

하나님은 성도가 점진적, 실제적 성화의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성화의 방편들 (means of grace)과 수단들을 마련해주셨다. 그것은 육신적인 신생아가 자라나는 과정에서 그 신생아의 성장을 위해 여러 가지 방편들과 수단들이 사용되어지는 것과 같다. 갓 태어난 신생아는 어머니의 젖을 먹어야 하고, 기저귀를 차야 하며, 적절한 수면을 취해야 하고, 또 자주 몸을 깨끗하게 씻음으로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접종을 맞아야 하고, 적절한 운동을 해야 하며, 혹시 질병에 걸리게 되면 치료를 받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신생아로 태어난 우리 역시 영적인 젖, 기저귀, 수면, 청결, 예방접종, 운동, 치료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다면 성화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다. 신령한 젖이다 (벧전 2:2). 따라서 거듭나고 중생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 먹을 때에도 체계적으로 잘 먹고, 또 소화를 잘 시켜야 한다. 처음에는 부드러운 우유나 식물 같은 말씀을 먹고, 점점 영적으로 자라나면 딱딱한 밥과 고기 같은 말씀을 먹어야 한다. 골고루 영양가가 있게 먹어야 하고, 동시에 말씀에 기초한 교리들을 먹음으로써 영적인 영양분을 균형 있게 잘 섭취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해야 함은 물론이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며, 이러한 신지식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한다.

둘째는 기도이다. 기도는 신자의 호흡이라고 할 정도로 성도의 영적 성장/성숙과정에 필수적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뿌리 박힌 기도는 성도와 하나님을 영적으로 연결시켜 준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는 깊은 인격적 교감이 형성된다. 성도는 무시로 기도하며, 골방에서 기도하고, 특별한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때로는 금식하며,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한다. 기도는 우리가 주님과 깊은 교통을 누리게 해주고, 영적인 힘을 공급해주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기도 한다. 기도는 영적인 노동이라고 불린다. 우리의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고 우리의 필요와 소원을 아뢴다는 것은 인간의 교만을 꺾는 일이기엔 결코 쉽지 않다. 하지만 성도는 기도라는 영적 노동을 통해 영적인 근육을 기르고 자라나게 된다.

셋째는 성도의 교제이다. 예수님을 동일한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은 주님의 몸 된 교회 공동체 속에서 깊은 영적 교제를 누리게 된다. 이 영적 교제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의 짐을 지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뤄지는 성도간의 교제가 없다면 성도의 영적 성숙은 더딜 수 밖에 없다. 성도의 교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부차적인 것이 아니다. 성도의 삶에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하기에 오늘날 교회를 떠나 신앙생활을 도

모하려고 하는 사람들, 소위 가나안 성도들은 그들의 의도가 어찌하든 매우 깊은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것이다.

넷째는 성례 즉 성찬 (the Lord's supper)과 세례 (baptism)이다. 주님께서 성찬과 세례를 교회의 성례 (sacrament)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 성숙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귀로 듣는 말씀 (the audible Word of God)이라면, 성찬과 세례는 눈에 보이는 말씀 (the visible Word of God)이다. 성찬에 참여함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념하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누리고, 잠자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게 된다. 세례에 참여함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주의 보혈을 예찬하며, 주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주의 살으심과 연합하여 의에 대하여 살게 된 우리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면서 성화과정을 걸어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다섯째는 예배다. 결국 위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말씀, 기도, 성도의 교제, 성찬과 세례 등 모든 요소들이 총체적으로 집약된 것이 예배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 예배시에 부르는 찬양은 꼭조이는 기도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의 성화를 위한 방편인 예배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성화의 방편과 수단들을 소홀히 하는 것이기에 심히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주님은 우리가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와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도 흠향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 영적 제사가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성도가 함께 모여서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성화의 방편을 총체적으로 경험하게 되므로 영적인 성숙을 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말씀, 기도, 교제, 성례, 예배와 같은 전통적이고, 통상적인 성화의 방편들 외에 최근 복음주의권에서 강조되고 있는 성화의 방편에는 영성훈련 (spiritual discipline)이 있다. 복음주의 영성신학자들은 성화의 과정을 "영성형성" (spiritual formation)의 과정이라고 부르며, 영성형성을 위해서 영성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강조하는 영성훈련에는 금식, 고독, 침묵, 영성일기, 하나님의 임재연습, 묵상, 안식 등이 포함된다. 이런 영성훈련들이 성화과정에서 적절하게 사용된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성장과 성숙에 큰 유익을 줄 것이라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갓 태어난 신생아의 성장에 필요한 요소들이 적절하게 공급될 때 그 신생아는 유아의 단계로부터 유치원의 단계로, 그리고 이어서 초등, 중등, 고등, 대학의 단계로 성장해 가게 된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주신 성화의 방편들을 건 강하게 활용할 때 영적으로 갓 태어난 성도는 점진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엡4 :13)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건강하게 자라게 된다. 주님이 마련해 주신 성화의 방편들을 균형있게 활용할 수 있는 깊은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절실하게 요청된다.

정성욱 박사  
美 덴버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CD Printing**

CD전문 주남미디어입니다.  
 교회성경,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장,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컨텐츠 제작

전도용 볼티슈  
 대안교회  
 마그네틱 원형물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Han's piano tuning**  
 피아노조율

James Han  
 Sale Used Piano  
 Professional Tuning  
 Repair & Moving  
 godfist91@gmail.com  
 Tel : 562-822-6778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이동희 원장

리프팅/ 지방분해  
**최신장비 도입**

★ 리프팅 라인 ★ 부분 지방분해 S라인  
 [4회 \$999] [8회 \$999]

탈모 치질 갑상선 당뇨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 7~25lbs**

손가락 발가락 마디관절 류마티스 관절통증 퇴행성 관절통증 손톱 발톱 질환

“만성두통, 양쪽 어깨 통증, 뒷목 뻣기고 귀울림(이명), 어지럽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메스거리고, 꿈이 많고 깊은 잠을 못 자고, 한쪽 얼굴이 감각이 없거나 눈과 입 주위에 경련, 손과 팔이 저릿저릿하고 시큰거리는 마비증, 턱관절 장애 T.M.J.”

교통사고 전문병원

배배는 숙변제거약 먹으면서 체중 줄고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50 한달분**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한의원  
**영선한의원**

영업시간 월~금, 10시 ~ 5시 토 10시 ~ 2시

**Tel. 213 380 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 (6가와 아드모아)





장재효 목사의 은혜의 샘

# 구령위한 생명 사역의 섭리

사도행전 9:32-43



서울성인교회 목사 장재효

생명사역이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통해 어떻게 죽은 영혼을 살려 하늘나라 가게 하시기를 말합니다. 그 생명사역을 위한 섭리, 즉 하나님의 구원계획과 진행과정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 1. 예수님이 보이신 생명 사역의 섭리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며, 약한 자를 강하게 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십니다. 이것을 왜 권능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권능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러한 권능을 성령으로 무장시키셔서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내셨을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영혼구원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세사하는 일에 지지고, 찌들고, 상하고, 굳어버렸음을 아셨습니다. 강박하고, 냉담한 심령들이었습니다. 그런 심령들은 이제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그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셔서 보내신 것입니다.

미치광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권능을 통해서 그 권능을 체험하고 지켜 본 사람들은 이 권능을 주신 예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 사역의 목적입니다. 이런 이적과 기사는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시는 표적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 이제 예수님께서 전도의 방법으로 생명 사역의 섭리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전도의 목적은 영혼구원이 틀림없습니다. 영혼구원을 목적으로 이적기사를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이적기사를 표적으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까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은 성도들까지 성령으로 무장시켜 보내내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이런 이적기사를 행하게 하시는 목적은 생명사역의 기대 때문입니다.

## 2. 이적을 통한 생명 사역의 섭리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에게 심방을 갔습니다. 그때는 지방에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주로 어느 집에 그 지역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베드로가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이름은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이 에니아가 중풍병으로 사지를 못 쓰게 되어 자리에 누워 앓은 지 팔년이나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일이었습니다. 벌써 8년이나 지났으니 이제 사람구실하기 힘들 것이라고 모두 생각했을 그때에 베드로가 성령에 이끌려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따라 에니아를 불

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성경의 증거를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목자는 양떼와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중재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양떼 그 사이에 목자가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그 양떼를 위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바로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목자와 양떼의 관계를 확인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지혜도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에니아를 붙잡고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에니아를 살려서 쓰시겠다는 응답이 왔습니다. 이 베드로가 기도 끝나기 바쁘게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34절) 하니, 에니아가 벌떡 일어나서 누웠던 자리를 정돈하는 것입니다. 그 후 35절에 보니 “룻다와 사룬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고 소문이 사방으로 퍼졌다는 것입니다. 소문만 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 사역의 섭리입니다. 베드로와 에니아를 목양기간으로 묶어주셔서, 목자를 통하여 병 고침을 받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체험하는 은혜를 뛰어넘어, 많은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한 표적이 되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 3. 다비다를 통한 생명 사역의 섭리

36절부터 보면 음바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그곳은 지금 텔아비브라고하고 불리며,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가 있는 곳입니다. 바로 그 음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유대인의 말로 번역하면 도르가라 하였습니다. 이 여인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선행과 구제를 했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 구원을 얻어, 영혼이 하늘나라 갈 신령한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애와 자기가 가진 재산을 아낌없이 복음의 제물로 투자했습니다. 옷감을 많이 사서 과부들에게 일거리를 주어 재봉하여 만든 옷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전도하였습니다. 그 영혼들이 생명 얻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구제와 선행이 주변에 두루 퍼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시체를 깨끗이 씻어서 다락에 누워눕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을 것이고,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병들어 죽은 모습을 보면서 시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룻다로부터 에니아의 중풍병을 베드로가 고쳤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렇습니다. 룻다와 음바의 거리

가 약 14km정도, 삼십 오리쯤입니다. 그 소문을 들은 제자들은 룻다에 있는 베드로에게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음바에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베드로를 데리고 다락에 올라갔습니다. 다비다와 함께했던 과부들이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다비다가 저희와 함께 살아 있을 때에 만든 속옷과 겹옷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선행과 구제를 통해서 다비다는 전도 사역에 엄청난 성과를 올려드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되살려가시고, 이런 방법으로 계속 생명사역을 하게 하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구원을 얻겠는가하며 아쉬움을 호소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사람들을 다 나가게 하고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기도에 응답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비다를 되살려 생명사역을 위해 계속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고 기도하던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은 채로 시체를 향하여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했더니, 다비다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일으킨 다음, 아래층에 있던 성도들과 과부들을 다 올라오라하여 살아난 다비다를 보여주었습니다. 분명 자기네들이 시체를 씻어서 이층 방에 눕혔는데, 베드로가 기도하여 되살아난 다비다를 부둥켜안으면서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이 소문이 음바 전 지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온 음바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 많이 주를 믿었습니다. 다비다가 죽었다가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 되살아나게 된 이적이 기적제가 되어 음바의 많은 영혼들이 구원 얻게 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 사역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비다를 통해서 생명 사역이 계속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다비다를 되살리심으로 그가 주께서 살리시는 날 동안 계속 옷을 지어 전도하는 일로 구령 성과, 즉 생명 사역의 더 많은 성과로 쓰임 받게 하셨다는 것도 함께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 없고, 살려고 해도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켜 가시면서 쓰시는 것입니다. 옛날 히스기야 왕은 15년의 생명을 연장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진작 죽어서 하늘나라 갔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고쳐 가면서 오늘까지 붙들여 쓰시는 것입니다.

이정도 되면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왕 고쳐 쓰시려면, 완전무결하게 한 30~40대처럼 아주 활력이 넘치는 건강한 상태로 만들어서 쓰시지 않으시는가?’ 저도 생각해봅니다만 그렇게 하면 내가 탄 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적당하게 고쳐가며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다비다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그 여인은 자기 생애와 가진 모든 것을 몽땅 다 투자해서 영혼들을 구원 얻게 하려고 생명 사역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친 것입니다.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인생이니까 죽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영혼이 구원 얻을 수 있다면, 생명사역에 헌신, 봉사, 충성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를 되살려 쓰시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목숨이 먼저입니까? 생명 사역이 먼저입니까? 그 사람에게 생명 사역의 성과가 분명히 보여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생명을 보장하시면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성인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 V 한국 방송 설교		한 국 신 문 설 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 V 미국 방송 설교		라 디 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310 기본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기독교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금요일 오후 2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 통증탈출 양자칩

## 양자파동 에너지 칩

- 양자에너지(16번 공정을 거친 토션이라는 제5의 힘, 토션필드 토션장, 회전 전자파, 스핀파)가 30cm이상 방출
- 생체에너지 활성화, 최상의 컨디션 유지.
- 적혈구를 깨끗하게 하여 활동성을 강하게 하고 신속하게 젖산 배출.
- 12경락 365경혈 신속하게 풀어줌.
- 침시술 이상의 효과

▶ **신체 어느 곳이든 통증에 사용합니다.**  
천연 자연물질과 양자에너지를 융합시켜 자연 에너지를 방출하는 획기적인 제품으로 팔, 다리, 허리, 어깨, 목 등 통증이 있는 곳에 붙이는 반영구적 칩입니다.

▶ **면역력 강화**  
자연 에너지를 인체에서 공명, 흡수함으로써 활발한 기혈순환으로 신진대사가 원활하므로 체온이 약 0.5~1℃ 상승되어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Z-UP전동거꾸리 LOLC Inc.** For the Spirit & Body

# 양자 깔창

## 양자 파동 에너지 쿠션 죽초액 발매트

- ▶ **추천인**  
당뇨분들의 발보호, 평발인 분, 뒤꿈치 갈라진 분들, 족막염성 통증, 발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 발목, 발바닥, 발등 백색 건선 피부, 족부 혈행 원활, 직립형 활동 직업, 발 관련 질환자, 평안하고 아늑한 보행, 피로를 현격하게 감소
- ▶ **원리**  
걸을 때 3배의 하중에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주는데 제품 착용시 무거운 체중을 골고루 분산시켜 허리, 무릎 부담을 현저히 줄여줍니다.
- ▶ **제품의 특징과 효능 및 효과**
  - 1) 죽초액 : 체중 분산, 구름을 걷는 느낌, 마사지 효과
  - 2) 은 : 향균, 항취 효과
  - 3) 원적외선 방출 분말 : 신체의 모든 부분을 원활하게 함
  - 4) EM 유용 미생물 : 굳은 각질을 제거해서 발을 부드럽게 함.
  - 5) 양자 에너지 처리 : 온 몸에 활력이 넘친다.
  - 6) 제품의 특징 : 신체의 여러 흐름을 빠르고 원활하게 함.

※사용시간만큼 쿠션감은 약해질 수 있으나 미생물 번식, 분해, 원적외선 방출, 양자파동 에너지는 반 영구적으로 나옵니다.



박욱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미국 대선에 대한 단상(下)

# 미국 대선 결과를 통해 교회가 되새겨야 할 원칙

교회, 스스로 정치세력화되는 일 경계해야  
정치 외에도 기독교 영향력 전파할 길 많아  
특정 정치세력 비호, 교회 스스로 고립시켜

### ◆미국의 정체성: 한국인과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갖는 의의

지난 3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뒤, 미국 정국은 내홍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 투표의 신뢰성 문제를 거론하며 각 주 법원에 선거 결과와 관련해서 소송을 걸고 있고, 향후 연방대법원 상고까지도 불사할 것이라 예고하고 있다.

선거 결과는 끝까지 추이를 지켜 봐야 알 수 있을 듯하다. 다만 이번 선거를 통해 분명해진 사실은 세계 제일의 패권국가 미국의 정신적, 문화적 정체성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이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 그리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집권기를 거친 미국은 더 이상 앵글로-색슨 계열 백인 중심 사회가 아니라는 것이 이번 선거를 통해 명백히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제 히스패닉과 유색인종 중심의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진정한 '이민자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물론 미국 사회의 정치경제적 실권은 여전히 백인 엘리트 계층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다수의 일반 시민들이 공유하는 정서와 문화는 거의 확실하게 전통적인 백인 중심 정체성을 탈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인구 구성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인종은 여전히 백인(74%)이다. 하지만 이 백인들 가운데 주로 도시 지역에서 대학 교육을 받은 이들이 스스로 백인 중심 문화와 정체성을 포기하고 인종과 문화의 다원성을 수용하면서, 미국 민주당이 표방하는 정치적 방향성을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미국 내 이촌향도, 도시화 경향이 강화되면서 점진적으로 더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확인된 미국 내 인구지리학적 변화는 한국인에게, 그리고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일단 미국으로의 이민, 이주를 바라는 이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미국 내 인종차별이 줄어들고, 거기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민주당이 추구하는 정치적 방향성은 국내에 거주하는 한국인 다수에게도 유리한 점이 많다. 우선 한국 집권여당이 진보정치를 표방하고 친중 성향을 유지하는 상황

에서, 역시 진보적 가치를 추구하고 중국과 보다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민주당 후보 바이든이 집권하게 될 경우 우리 정부의 정책적, 외교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물론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이 지금보다 훨씬 강경한 입장을 펼치면서 남북관계가 더 심하게 경색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낙관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 기독교인들은 민주당의 정치적 가치가 점점 더 크게 환영받는 미국의 현실에 다소간의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 이래 미국 민주당의 정치적 가치는 그들을 지지하는 진보정치 성향 시민들의 사고에 영합해, 기독교 신앙과 윤리를 점차 외면하고 배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 ◆미국의 정교관계: 네오콘의 실정(失政)으로 본 정교분리 원칙의 중요성

현재 상황으로만 보면, 미국 민주당이 추구하는 정치적 방향성이 마치 오래 전부터 기독교적 가치를 외면해온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도 1990년대 이전까지는 미국의 전통적인 개신교적 가치와 문화를 중시해 왔다. 당시 민주당이 추구하던 인종 간 평등과 이민자 보호 정책은 모두 기독교적 인권 및 평등 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최근 공화당을 지지해온 플로리다, 조지아, 아칸소, 미시시피, 테네시, 사우스 캐롤라이나, 루이지애나, 텍사스 등 남부 지역은 미국 남북전쟁 이후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거의 한결같이 민주당 강세 지역이었다.

게다가 민주당은 1976년까지만 하더라도 독실한 남침례교 신자로서 기독교적 가치를 중시했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운 이력이 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미국 민주당은 기독교적 가치를 외면하는 진보 성향 정치를 표방하기 시작했고, 이에 남부 바이블벨트에 속한 주 상당수가 공화당을 지지하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1980년대 민주당 내부의 우익 보수 세력으로서 남부의 보수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의 지지를 받았던 신보수주의자들, 소위 네오콘(neocon) 멤버들의 대거 당적 이전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담화 중인 빌리 그레함 목사. 빌리 그레함 목사는 '대통령들의 목회자(Pastor to the Presidents)'라 불릴 정도로 다수의 미국 대통령들에게 신앙에 관한 조언을 아끼지 않은 인물이다. ©GEORGE W. BUSH PRESIDENTIAL LIBRARY & MUSEUM

이들이 공화당에 합세하면서 공화당 내부에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기독교적 소명을 실천하는 미국 정치"라는 개념이 점차 득세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 사상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집권기에 본격적으로 현실화된다.

딕 체니(부통령), 도널드 럼스펠드(국방장관), 존 볼턴(UN 대사) 등 네오콘 멤버들이 부시 행정부의 핵심 세력으로 부상하면서, 미국 내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의 정치적 지지가 공화당으로 집중되었다.

네오콘의 득세는 미국 내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에게 양날의 검과 같았다. 네오콘이 장악한 미국 정부는 여러 측면에서 기독교적 가치들을 정책적으로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네오콘 인사들은 기독교적 가치를 수호한다는 명분 아래 미국우월주의를 내세우고 이슬람 국가들과 종교적 갈등을 심화시켜 테러와 전쟁 상황을 초래하는 등 미국과 전세계에 큰 불행들을 초래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 불행한 사태는 미국의 보수 복음주의 기독교가 호전성과 배타성을 가지고 정권과 결탁하는 세력이라는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미국적인' 기독교 가치를 관철하기 위해 정교분리 원칙을 깨고 전쟁마저 불사하는 믿음을 고수한다는 이미지가 고정되어 버린 것이다.

이러한 이미지는 백악관에 자주 출입하며 역대 대통령들에게 신앙의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빌리 그레함 목사에게 강화되었으며, 그를 통해 삶이 변화되었다고 소회한

부시 대통령의 발언으로 기정사실화되었다.

물론 빌리 그레함 목사는 미국의 위정자들이 신앙의 양심에 합당한, 공의와 평안을 중시하는 정치적 판단을 내리도록 조언하려 했을 뿐이다.

전쟁과 종교갈등을 조장한 책임은 빌리 그레함 목사나 보수 복음주의 지도자들에게 있지 않았다. 상황을 악화시키고 오해를 증폭시킨 것은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의 정치적 지지를 악용하고 신앙의 양심에 위배되는 정치를 주도한 네오콘 인사들의 책임이다.

이처럼 정교분리 원칙을 무시한 네오콘 세력의 호전적 성향 때문에 복음주의 기독교, 기독교 우파에 대한 세계인들의 시각은 회의적으로 변하고 말았다.

그리고 이렇게 세간에 널리 퍼지게 된,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에 대한 오해와 반감은 이번 선거 결과를 초래한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로 작용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번 미국 대선 결과에 어떻게 종결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전면 불복하고 있는 이상 대선 결과가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도 분명한 사실은, 교회가 정교분리 원칙을 철저히 지키지 못하고 정권과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일 때, 해당 정권의 실정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짊어지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런 실책은 교회가 사회 전반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심각한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 역시

주지할 필요가 있다.

교회는 스스로 정치세력화되는 일을 경계해야 한다. 이전 논평에서 언급한 대로, 종교개혁 당시 유럽과 같이 일상의 삶 전반이 특정 정치세력이나 종교 집단에 강력하게 지배되던 시대에서조차 다수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신앙과 정치의 철저한 분리를 주장했다.

하물며 사회가 다원화되고, 사람들의 삶이 정치만이 아니라 각종 사회적, 문화적, 공동체적 가치들에 의해 다각적으로 영향을 받는 오늘날의 현실에서 굳이 교회가 정치세력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을까?

교회가 정치, 사회, 문화 전반에 기독교적 영향력을 전파하는 길은 과거보다 훨씬 넓게 열려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성경적 가르침을 거부하면서까지 특정 정치세력을 과도하게 비호하는 것은 교회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많은 한국 기독교인들이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관심과 지지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분별있게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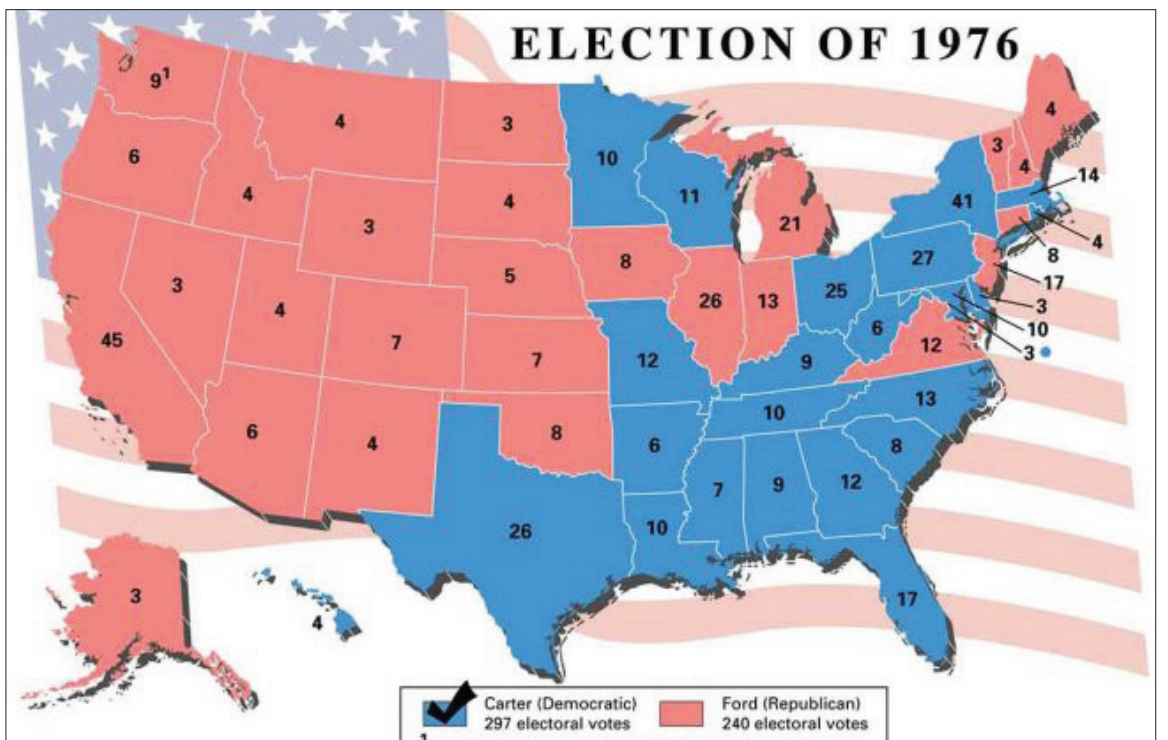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한국과 미국 기독교인들 가운데 대다수는 교회가 정치에 깊이 관여하는 상황을 바라고 그를 지지했던 것이 아니다.

단지 신앙의 삶을 영위하고 교회의 책무를 담당하는 데 그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적 방향성을 따르는 지도자를 원했을 뿐이다.

◆박욱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바이든 후보의 지지기반 중에는 히스패닉, 흑인 및 기타 유색인종 외에도 점차 늘어나는 백인 지지층이 포함되어 있다. ©페이스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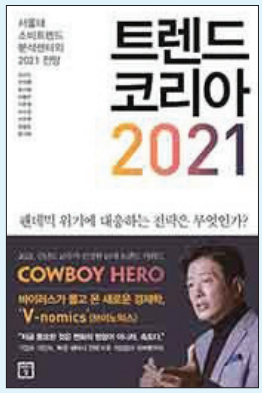


1976년 지미 카터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당시 선거 결과. 당시 바이블벨트 전 지역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이었다. ©britannica.com 캡처



아트설교연구원 인문학 서평 카우보이 히어로

# 희망이 필요한 2021년...우리는 또 다시 어려움 이겨낼 것



트렌드 코리아 2021 김난도 외 미래의창 | 400쪽

코로나 이후 찾아온 강인한 소의 해, 대한민국이 마주할 묵직한 변화의 흐름을 짚다

코로나19는 이제 삶의 일부가 됐다. 그렇다면 소비자의 생활은 어떻게 바뀌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언택트untact' 일 것이다.

### 희망이 필요한 시대다.

올해 전망은 암울하다. 한국뿐 아니라 모든 국가가 그야말로 경제적 재난 사태다. 사태 회복 후에도 '90% 경제'에 머물 것이라고 한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코로나 이후의 경제를 예측하면서 내놓은 전망이다.

개인의 삶은 더 힘들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보고서를 보면 골목상권 업종들의 하반기 순이익은 지난해보다 42.0% 급감하고 코로나19 상황 악화 시에는 52.6% 이상 폭락할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들은 풍족할 때 희망도 의미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희망은 풍족한 상태에서 찾아오지 않는다. 풍족한 사람은 희망하지 않는다. 이미 채워졌기 때문이다.

지금 아픈 사람이 건강을 희망한다. 불행 속에 있는 사람이 행복을 희망한다. 이별을 경험한 사람이 새로운 만남을 희망한다. 희망은 결핍 속에서 빛난다. 어느 때보다 희망이 필요한 시대다.

올해도 어김없이 『트렌드 코리아 2021』이 나왔다.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는 서울대 김난도 교수가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 연구팀과 함께 소비트렌드를 분석한 책이다. 2021년은 특별하다. 코로나19를 지났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인류의 연대를 예수를 기점으로 B.C., A.D.로 나누듯, 이제는 코로나 사태를 전후로 BC(Before COVID) AD(After Disease)로 나눠야 한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그만큼 코로나의 영향력이 막강하다.

'트렌드 코리아'는 매년 그해 때가 되는 동물을 상징으로 키워드를 제시한다. 2021년은 신축년(辛丑年) 소띠 해다.

『트렌드 코리아 2021』의 키워드는 카우보이 히어로(COWBOY HERO)다. 날뛰는 야생의 소를 능숙하게 길들여내는 카우보이들처럼, 날뛰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아내면 좋겠다는 소망을 담았다고 한다. 히어로는 이 사태를 헤쳐 나가는데 헌신적인 희생을 보여준 의료진과 시민들 같은 영웅들을 지칭한다.

『트렌드 코리아 2021』은 2021년 10대 트렌드 흐름을 제시한다.

### 1. 브이노믹스 Coming of V-nomics

브이노믹스는 바이러스가 바뀌 놓은, 그리고 바꾸게 될 경제를 의

미한다. 새로운 브이노믹스 패러다임에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가 장기 화될 코로나 시대를 이겨내는 전략을 제공할 것이다.

2. 레이어드 홈 Omni-layered Homes 집이 변한다. 의식주의 기본 기능에서 업무와 휴식, 놀이와 창의 기능을 겸하고, 인근 동네로까지 공간이 확장된다. 집의 기본 기능 위에 다른 기능이 더해지는 다층적 공간으로의 변신을 '레이어드 홈'이라고 칭할 수 있다.

### 3. 자본주의 키즈 We Are the Money-friendly Generation

돈과 소비에 편견이 없는 새로운 소비자층이 등장하고 있다. 어릴 때부터 광고, 시장, 금융 등 자본주의적 요소 속에서 자라 자본주의 생리를 몸으로 체득한 세대가 소비의 주체로 성장한 것이다.

이들에게 "돈 밝히며 못쓴다"는 말은 옛말이고 "돈에 밝지 않으면 정말 '못 쓰게'된다"는 말이 생활신조가 되고 있다. 새로운 경제관념으로 무장한 자본주의 키즈는 브이노믹스와 그 이후 세상을 이끌어갈 주역이 될 것이다.

### 4. 거침없이 피보팅 Best We Pivot

제품, 전략, 마케팅 등 경영의 모든 국면에서 다양한 가설을 세우고 끊임없이 테스트하면서, 그 방향성을 상시적으로 수정해나가는 일련의 과정이 '피보팅'이다. 빠른 속도로 변하는 시장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이제 거침없이 피보팅하라.

### 5. 롤코 라이프 On This Rollercoaster Life

아무리 재미있어도 다 즐기고 나면 미련 없이 하차하고 다음 놀거리로 갈아탄다. 이 같은 '롤러코스터 라이프'를 사는 '롤코족'은 더 이상 번덕스러운 젊은이들이 아니라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가 되고 있다. 따라서 100% 완벽한 마케팅보다는 재빠르게 치고 빠지는 '숏캐팅'이 중요해졌다.

### 6. #오하운, 오늘하루운동 Your Daily Sporty Life

운동 열풍은 단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건강과 면역에 관심이 커진 것뿐만 아니라, 건강에 방심하지 않는 MZ(밀레니얼, Z세대)의 세대적 특성, 정체의 시대의 운동으로 성취감을 찾으려는 경향, 관련 기기 및 플랫폼 시장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브랜드는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 전반을 설계하는 액티비티 디자이너로서의 역할이

강화될 것이다.

### 7. N차 신상 Heading to the Resell Market

요즘 사람들에게 중고품이란, 단순히 '남이 쓰던 상품'이 아니라 '여러 차례(N차)' 거래되더라도 '신상(품)'과 다름없이 받아들여지는 것, 즉 'N차 신상'이라고 부를 수 있다. 중고시장은 이제 투자처로서, 놀이터로서, 커뮤니티로서, 플랫폼으로서 지역사회에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8. CX 유니버스 Everyone Matters in the 'CX Universe'

고객 경험을 CX(Customer eXperience)라고 하는데, 이 CX가 단편적인 점점 관리에 그치지 않고 마치 마블 유니버스처럼 특정 브랜드의 세계관을 함께 공유할 때, 이를 'CX유니버스'라고 부를 수 있다. 팬덤을 만들고 충성도 높은 고객들과 함께 브랜드 세계관을 확장해나가야 한다.

### 9. 레이블링 게임 'Real Me' : Searching for My Own Label

자기 정체성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현대인은 '레이블링 게임'에 몰두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라서 이런 브랜드를 사는 게 아니라, 이런 브랜드를 사는 걸 보니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역의 인과관계가 만들어지고 있다. 소비자와 브랜드 사이의 정체성 동일시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이유다.

### 10. 휴먼터치 'Ontact', 'Untact', with a Human Touch

코로나19 사태로 언택트 트렌드가 더욱 조명을 받으면서 기술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 인간과의 단절이나 대체가 아니라, 인간적 접촉을 보완해주는 역할이어야 한다는 점이 더 분명해지고 있다.

소비자가 구매 결정을 내리는 '진실의 순간', '진정한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적인 '감성'과 '공감'이다.

불가항력의 역병이 장궤하고, 첨단 기술은 빛의 속도로 앞서나가며, 트렌드는 숨 가쁘게 바뀌는 어려운 시대, 이 변화의 삼각파도에 살아남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이 담긴 인간의 손길', 즉 휴먼터치다.

### 어려울수록 간절해져... 고난 속 희망 빛나

코로나는 경제에만 영향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저자는 한 번 시작된 변화는 뒤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한다.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더라도 트렌드는 결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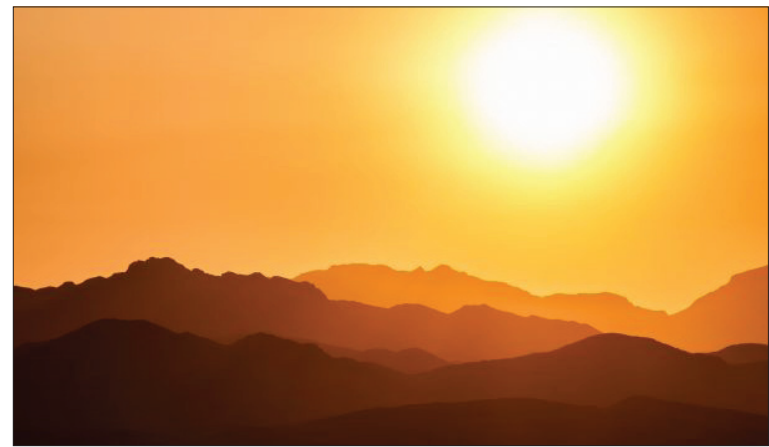
힘들고 어려워도 어김없이 2021년은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늘 그랬듯이 우리는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사람은 간절해진다. 밤이 깊어질수록 별은 빛난다. 고난 속에 희망이 빛나는 이유다.

코로나는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 고난은 삶을 바꾼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극심한 핍박이 일어나자 믿는 무리는 흩어진다. 그러나 흩어져 사라진 것이 아니다. 그들은 흩어진 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갔다.

코로나는 경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 미국의 컨설턴트 짐 콜린스는 말한다.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라. 그러나 믿음은 잃지 말라."

우리는 믿음만큼은 자신 있다. 희망이 필요한 시대다. 어렵고 힘들수록 믿음을 잃지 말기를 바란다.

김현수 목사  
행복하나무교회 담임  
출처:아트설교연구원



www.marhlaw.com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이민법**  
낯선 땅에서 안정된 신분과 안정된 삶의 정착의 중요성은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마변호사그룹에서는 그러한 중요성을 심분 새겨서 가족의 일과 같이 모든 신분변경 및 이민케이스를 꼼꼼함과, 정성과, 넓은 시야를 갖고 대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의뢰인들께 만족한 결과를 드린 것이 저희 마변호사그룹의 기쁨이요 자랑입니다.

**상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 (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기간 그 실력을 인정 받아 온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분의 법적문제에 의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와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 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 합니다. 지피지기가 이루어 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 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상담은 꼭 변호사와 하십시오!**  
모든 상담은 절대 비밀을 보장합니다.  
무료상담 / 이메일 예약 환영

**Attorneys**  
David Marh  
Simon Langer  
Frederick Alschuler  
Gordon Turner  
Nicholas Valmes  
Walter Roberts  
Douglas Villinger

**辯護** 변호  
의뢰인의 원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것을 파악하는 것이 변호의 핵심이라는 것을 늘 염두하고 있습니다. 참된 변호란 의뢰인의 처한 상황과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불필요한 소송은 때로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이해상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근절되어야 합니다.

**實力** 실력  
마변호사그룹의 오랜 경험이 물론 실력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문제의 핵심 이슈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용되는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은 물론,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 지체롭고 때론 창의력을 갖춘것이 마변호사그룹의 진정한 실력이라 하겠습니다. 이 실력은 의뢰인을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무기입니다.

**精誠** 정성  
가장 큰 정성은 의뢰인의 문제를 내 것처럼 생각하는 것일것입니다. 마변호사그룹은 모든일을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뢰인과 오랜기간 귀한 관계를 이어온 것도, 정성어린 마음의 결과라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責任** 책임  
마변호사그룹에서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물론 백은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의뢰인과의 대화를 중요시 생각합니다. 전화, 이메일, 미팅을 통해 어느때든지 마변호사그룹은 의뢰인과의 대화 창구를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信賴** 신뢰  
변호사의 진정한 기쁨과 긍지는 의뢰인으로부터 얻는 신뢰일 것입니다. 한편 한편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기에 신뢰는 저희 마변호사그룹의 밑거름이요 최종 목표입니다. 진정한 신뢰 없이 친분이 없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tel. 213. 487.9190 fax. 213.487.9484 email. marhlaw@yahoo.com 3325 Wilshire Blvd., Suite 1350, Los Angeles, CA 90010





# 찾아요!

## 오픈청지기재단에서 사랑과 나눔을 함께 할 2020년 오픈청지기 프로그램 수혜 단체를 찾습니다

한인사회를 비롯해 지역 커뮤니티에서 봉사하는 비영리 단체들이 운영중인  
현 프로그램 활성화와 확장을 **Open Stewardship Foundation**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오픈청지기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건강과 복지향상에 기여해 주실  
비영리 봉사단체들은 지금 바로 신청해주세요!

신청서 다운로드와 자격요건 및 지원금 등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openstewardship.com](http://www.openstewardship.com)

### 오픈청지기 프로그램 지원단체 모집 Open Stewardship Program

**접수기간** 2020년 10월 15일 - 11월 25일

**수혜단체 발표** 2021년 2월 28일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류 보내실 곳** Open Stewardship Foundation  
1000 Wilshire Blvd., #500  
Los Angeles, CA 90017



서류 접수는 우편으로만 가능하며 지원금 수혜단체는  
웹사이트, 신문광고, 안내우편을 통해 발표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온 세상에 전하는



오픈청지기재단 | 213.593.4885 | 1000 Wilshire Blvd., #500 Los Angeles, CA 90017